



가스선 강세 계속. HHIP의 탱커 4척 수주, 삼성중공업의 FDC

조선기계방산 최광식
이준범

gs.choie@daolfn.com
junebum34@daolfn.com

코멘터리 of 조선

▶ 신조선가지수 2주 연속 소수점 상승

① 신조선가지수가 2주 연속 소수점 상승해서 185.44p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주에 186p를 노려봅니다. 상승은 2주 연속 중형 벌크선과 VLGC가 견인했습니다.

▶ LNG선 수주 강세 계속

- ② HD현대중공업은 TEN으로부터 LNG선 1척을 수주합니다. 2029년 1월 납기인데 신조선가가 254.4백만달러로 좋습니다. 2월 발주에 덧붙인 2호선인데, 2월의 신조선가와와는 동일합니다.
- ③ HD현대중공업은 BW로부터도 LNG-FSRU 1기를 수주합니다. 2029년 5월 납기의 신조선가는 319.7백만달러입니다. 5월에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MISC의 FSRU는 328.4백만달러였습니다.

▶ LNG 파이프라인

- ④ 지난주에 알려진 ADNOC의 아부다비 해협을 우회하는 East Coast LNG(4MTPA)에 6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⑤ QatarEnergy는 NFW의 해양 쪽 입찰을 개시합니다. 중등전쟁에도 77 → 142MTPA로 생산능력 확대 투자를 계속합니다.
- ⑥ 다만 Mozambique LNG의 LNG선 17척의 슬롯 확정은 또 지연됩니다. 인도시점이 2029~2030년으로 밀리는데, 또 한국의 슬롯을 매년 8~9척 차지하는 좋은 효과가 발휘됩니다.

▶ 가스선 수주 강세 계속

⑦ HD현대삼호는 HMM으로부터 VLGC 2척을 수주합니다. 2029년말 인도물의 신조선가는 118백만달러입니다. 한국조선이 신조선가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 탱커 발주 강세 계속

⑧ 팬오션이 한화오션에 VLCC 2척을 추가 발주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투자 공시에서 밝힌 신조선가는 122.3백만달러입니다.

▶ 삼성과 HD한국조선해양의 아시아 생산거점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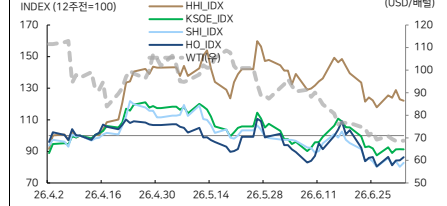
- ⑨ 삼성중공업은 Advantage Tankers로부터 수에즈막스 탱커 2척을 수주합니다. 이번 일감은 싱가포르-중국 PaxOcean에서 건조할 예정입니다. 이 조선사와 3번째 협력 건조입니다.
- ⑩ 필리핀 HHIP도 클락슨 데이터에서 Asiatic Lloyd로부터 LR2(115K-DWT) 2척을 수주한 것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⑪ 지난주에 알려진 시도상선의 VLCC 2척도, 클락슨에 입력되었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의 아시아 생산거점 확대 전략이 잘 수행되고 있습니다.

▶ 삼성중공업의 2028년 FDC 인도 계획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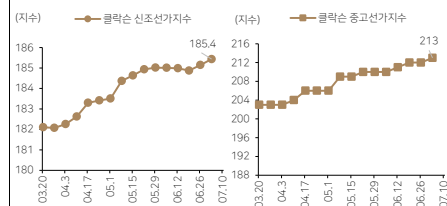
⑫ 삼성중공업은, 미국 AI 서버 기업 Supermicro와 공동 개발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고, 2028년 2분기에 세계 최초 FDC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2030년대 성장을 이끌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모니터링 차트

▶ 조선주 주가



▶ 선가지수



▶ 후반, 주요 선종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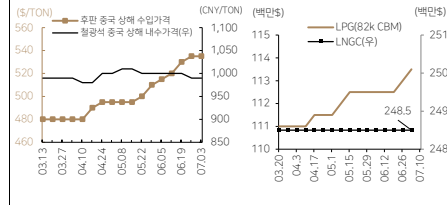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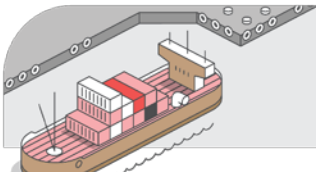


Fig. 삼성중공업이 2028년에 건조할 FDC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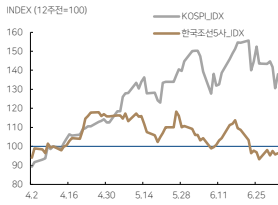
주시 뉴스

	수주, 수주설	수주	수주설
선가 & 그린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조선가지수 2주 연속 소수점 상승해 185.44p, VLGC 상승 견인 △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J Ocean HI에 매각 완료, 벌베 마르막스 수주설 ▷ 대체 연료 추진선 발주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조선가지수 4주만에 반등한 185.15P △ 미국 건조 LNG선 신조선가 648백만달러로 분석 △ 인도 SMR 추진 해운업에 투자 정책 발표 	
L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D현대중공업, TEN으로부터 LNG선 1척 수주 ▲ HD한국조선해양, BW LNG로부터 LNG-FSRU 1척 수주 △ TotalEnergies의 모잠비크 LNG선 인도 시점 또 연기 ▲ Shell 글로벌 LNG 수요 2050년 700MTPA로 +65% 증가 전망 제시 △ QatarEnergy NFW 해상 EPC 입찰 개시 ▲ ADNOC의 호르무즈 우회하는 East Coast LNG, 6개 업체 제안서 제출 △ ADNOC, 탈 중동으로 Rio Grande LNG 지분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NOC은 호르무즈 해협 우회 목적의 'East Coast LNG' 입찰 개시 △ LNG 공급과잉 우려 시점이 2028 → 2029-2030년으로 지연 △ 일본의 LNG선 건조 재개 시점 2030년 이후 전망 	
가스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D현대삼호, HMM으로부터 VLGC 2척 수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D한국조선해양, Dorian LPG로부터 VLGC 1척 수주, 선대 갱신 계속 진행 예정 ▲ HMM, 10척의 신조선 발주(현대 가스선 포함) + 향후 탱커, LNG선 추가 발주 	
컨테이너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 Moller-Maersk 가이던스 상향 	N/A	
탱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팬오션 VLCC 2척 추가 발주, 한화오션 수주 시장 추정 ▲ 삼성중공업, Advantage Tankers로부터 수에즈막스 2척 수주 ▽ 호르무즈 해협 개통을 앞두고, VLCC 스릿 운임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D한국조선해양의 필리핀 수빅 HHIP는 시도상선으로부터 VLCC 4척 수주 임박 △ SMC는 대한조선 발주 8척 중 2척 리세일, 87 → 95백만달러 	
해양/디펜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중공업, 2Q28에 FDC 인도 계획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c, 모잠비크 FLNG(Coral Norte) 프로젝트 핵심 계약 수주 △ Trident Energy, 서아프리카 FLNG 프로젝트 추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I+Adnoc과 아르헨티나 YPF는 FLNG 사업 추진을 위해, Vaca Muerta 가스전 내 지분 인수 △ Karpowership은 HSG생동조선에 부유식 발전선 시리즈 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광산업 컨소시엄, 케이조선 인수 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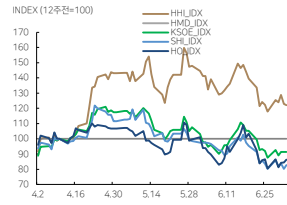


Peer Group 주가

▶ 한국 주식시장 vs. 조선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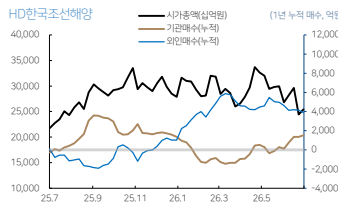


▶ 한국 조선5사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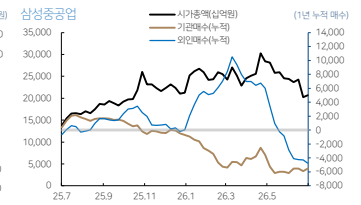


조선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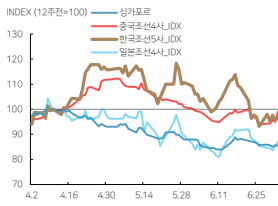
HD한국조선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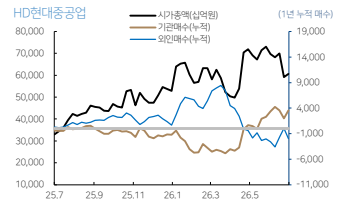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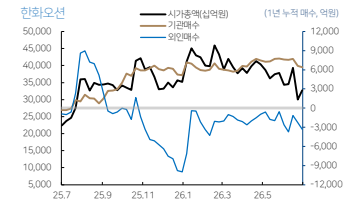
▶ 한/중/일/싱 조선주 주가 비교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글로벌 피어그룹 주가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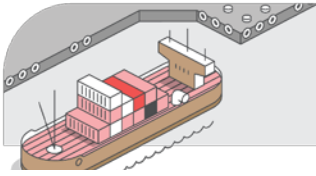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달러)	1W	1M	3M	3M 주가	1Y	3Y
지수	WTI		-8.8%	-2.5%	-1.1%		3%	-7%
	CRB INDEX		0.2%	-2.2%	-3.3%		1.8%	33%

조선사								
한국조선	HD한국조선해양	16,726	4.3%	-6.6%	-0.6%		18%	200%
	HD현대중공업	40,006	3.6%	-13.5%	18.1%		58%	335%
	삼성중공업	13,606	3.1%	-1.1%	1.4%		50%	233%
	한화오션	21,435	7.3%	1.1%	-1.9%		46%	193%
싱가포르	KEPPEL	15,141	-1.8%	-0.1%			44%	75%
중국조선	CSSC	41,232	11.2%	2.9%	20.5%		13%	20%
	CSSC OMEC	4,238	10.2%	-2.0%	3.1%		1%	-9%
	YANGJIANG	10,848	1.7%	-6.6%	1.5%		61%	142%
일본조선	NAMURA SB	1,567	-1.4%	2.4%	-3.3%		21%	490%
	MITSUI ES	2,819	7.9%	1.4%	-2.4%		65%	758%
	KAWASAKI HI	14,674	-0.6%	-6.6%	1.2%		39%	279%
	SUMITOMO HI	4,080	2.7%	2.0%	5.5%		74%	59%
대만조선	CSBC CORP TAIWAN	830	20.9%	14.3%	-3.3%		20%	-11%

엔진 / 부품								
엔진	WARTSILA	22,111	2.2%	-7.8%	4.1%		67%	235%
한국엔진	한화엔진	2,881	12.8%	-8.2%	14.0%		109%	347%
	STX엔진	747	5.0%	-21.8%	-14.6%		41%	99%
	HD현대마린엔진	1,468	19.9%	1.1%	-12.3%		57%	737%
기자재	한국카본	887	1.9%	-16.5%	-34.9%		15%	121%
	동성화인텍	345	9.7%	-9.6%	-24.2%		-24%	32%
	세진중공업	502	4.2%	-3.3%	-20.9%		28%	109%
	SK오션플랜트	626	5.9%	-5.5%	-46.6%		-26%	-27%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달러)	1W	1M	3M	3M 주가	1Y	3Y	
기름들									
RIG	TRANSOCEAN	5,650	-1.0%	-18.1%	-27.0%		83%	33%	
	SEADRILL	2,493	2.1%	-13.0%	-12.2%		37%	4%	
	Valaris	5,218	-1.3%	-18.2%	-26.3%		66%	3%	
	ODFJELL SE-A SHS	849	-3.3%	-5.9%	-10.0%		-7%	3%	
IOC+	ExxonMobil	568,163	0.4%	-10.1%	-19.8%		22%	3%	
	Shell	217,322	1.9%	-10.1%	-15.4%		8%	1%	
	BP	97,967	-0.5%	-14.4%	-20.0%		23%	3%	
	TOTALEnergies	174,272	-2.1%	-13.7%	-14.7%		26%	1%	
	Chevron	336,978	-1.1%	-10.8%	-19.9%		14%	0%	
	ENI	70,809	1.1%	-12.8%	-14.5%		47%	7%	
	Equinor	82,789	2.9%	-10.9%	-20.8%		22%	7%	
ENG.	FEED.	SBM	6,013	-0.3%	-8.1%	-11.4%		34%	3%
	Technip FMC	26,613	3.6%	-1.8%	-6.2%		91%	3%	
	SAIPEM	10,037	5.3%	2.0%	18.4%		85%	1%	
	NOV	6,467	-3.4%	-13.4%	-8.9%		38%	5%	
	MODEC INC	3,962	-3.5%	-8.7%	-37.6%		41%	2%	
	WORLEYPARSONS	3,650	-0.5%	-17.1%	-2.8%		-19%	32%	

해운								
해운	MAERSK DC Equity	36,837	4.8%	1.5%	3.8%		42%	3%
	SHIP FINANCE INTL LTD	1,556	0.6%	-3.7%	0.0%		19%	2%
	CLARKSON PLC	1,850	4.8%	-2.4%	-2.3%		37%	3%
	EURONAV NV	4,778	5.8%	1.7%	23.4%		68%	3%
	FRONTLINE LTD	8,181	3.5%	6.6%	9.2%		111%	3%
	NORIC AMERICAN TANKERS LTD	1,230	-0.7%	11.3%	2.7%		114%	3%
	KNOT OFFSHORE PARTNERS LP	343	0.1%	-7.0%	-3.2%		46%	2%
LPG	BW Offshore	840	0.6%	-2.4%	-12.5%		40%	2%
	DORIAN LPG LTD	1,541	-0.1%	-11.7%	10.7%		52%	3%
	EXMAR NV	1,025	-0.9%	-3.5%	5.8%		38%	2%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신조 수주(외선, 전자공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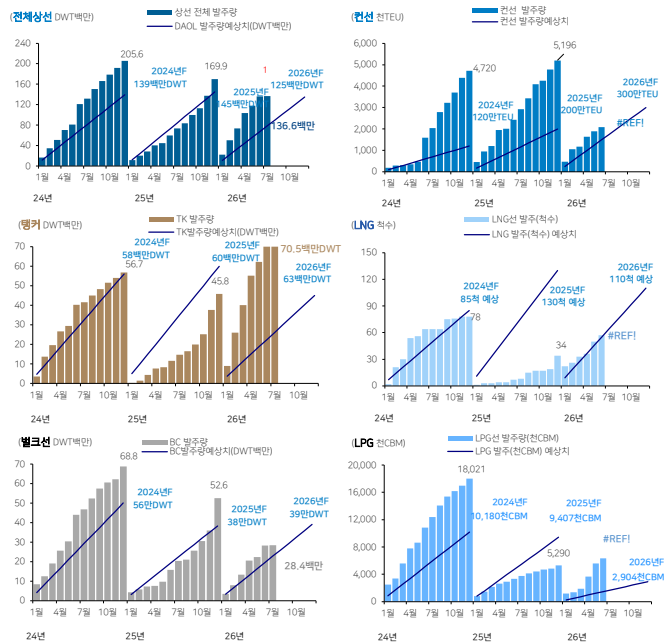
- ▲ HD현대중공업, TEN으로부터 LNG선 1척 수주
- ▲ HD한국조선해양, BW LNG로부터 LNG-FSRU 1척 수주
- 아래의 LNG 섹션 참고
- ▲ HD현대상호, HMM으로부터 VLCC 2척 수주
-아래의 가스선 섹션 참고
- ▲ 팬오션 VLCC 2척 추가 발주, 한화오션 수주 시장 추정
- ▲ 삼성중공업, Advantage Tankers로부터 수에즈막스 2척 수주
-아래의 탱커 섹션 참고
- ▲ 삼성중공업, 2Q28에 FDC 인도 계획 발표
-아래의 해양/디펜스 섹션 참고

▼ Clarkson 신규 수주 입력 업데이트(한국)

- ③Samsung HI→Advantage Tankers, TK(157k-DWT) 2척
-아래의 탱커 섹션 참조
- ③HD Hyundai HI (HHI)→BW LNG, FSRU(174k-CBM) 1척
-아래의 LNG 섹션 참조
- ③HD Hyundai HI (HHI)→Tsakos Energy Nav, LNG(174k-CBM) 1척
-아래의 LNG 섹션 참조
- ③Hyundai Philippines→Cido Shipping, TK(300k-DWT) 4척
[06월4주] ▲ HD한국조선해양의 필리핀 수위 HHIP는 시도상선으로부터 VLCC 4척 수주 임박
- ③Hyundai Philippines→Asiatic Lloyd, PTK(115k-DWT) 1척
-알려지지 않은 수주건
- ③HD Hyundai Samho→Unknown(HMM 추정), LPG(90k-CBM) 2척
-아래의 가스선 섹션 참조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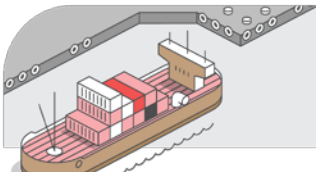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클라크슨 신조 발주: 한/중/일

주석: 클라크슨 입력 DATA 만 & 해양은 뉴스/공시 기준

국적	조선사	수주일자	발주처	선종	선형	인도	척수
2026년 07월 1주							
대한민국	Samsung HI	26.07.01	유럽	Advantage Tankers	TK	157k DWT	2029 2
	Hyundai Philippines	26.05.01	중국	Cido Shipping	TK	300k DWT	2029-2030 4
		26.06.01	유럽	Asiatic Lloyd	PTK	115k DWT	2029 1
	HD Hyundai Samho	26.06.26	Unknown	Unknown	LPG	90k cu.m.	2029 2
중국	HD Hyundai HI (HHI)	26.06.30	아시아	BW LNG	FSRU	174k cu.m.	2029 1
	Huangpu Wenchong	26.06.18	Unknown	Global Ship Lease	CONT	6k TEU	2029 4
중국	Shanghai Waigaoqiao	26.06.29	유럽	SBM Offshore	FPSO	250k bopd	2030 1
	Hunan Xiangchuan	26.06.09	중국	Zhedong Trans	FERRY		2027 1
	Jiangmen Nanyang	26.06.26	Unknown	Unknown	BULK	65k DWT	2030 6
						41k DWT	2030 5
중국	Jiangsu Dajin HI	26.07.02	유럽	Wageningen Shipping	BULK	7k DWT	2027-2029 8
	Jiangsu New Hantong	26.02.01	유럽	Trafifura Maritime	TK	320k DWT	2030 2
		26.06.01	유럽	Erasmus Corp	BULK	82k DWT	2029 4
		26.06.23	아시아	U-Ming Marine	BULK	211k DWT	2029-2030 2
	Jingjiang Nanyang	26.01.01	아시아	Ever Prosperity Shpg	CONT	73k DWT	2027-2028 2
	New Dayang SB	26.06.30	중국	Minsheng Shipping	CONT	1k TEU	2028-2029 2
	Ningbo Boda SB	26.03.01	중국	Xiamen Minjie Shpg	CONT	3k TEU	2027 1
				Xiamen Feihongsheng	CONT	3k TEU	2027 1
	Wuhu Shipyard	26.01.01	아시아	MTT Shipping	CONT	3k TEU	2028 4
	Yangzhou Guoyu	26.07.02	중국	Yanggang Hechuang	PTCT	6k Cars	2028-2029 2
	Zhejiang Xenzhing	26.01.01	중국	Xiamen Yantianxian	CONT	4k TEU	2027 1
	COSCO HI (Qidong)	26.05.07	유럽	SBM Offshore	FPSO	120k bopd	2030-2031 2
	Pinghu Huahai SB	26.06.25	중국	Wenzhou MSA	OTHERS	0k LOA	2027 1
	Nantong Xiangyu SOE	26.06.24	아시아	Akij Shipping Line	BULK	64k DWT	2029 4
	Hantong WinG HI	26.06.01	유럽	Enesel SA	BULK	64k DWT	2027-2028 4
	Hengli SB (Dalian)	26.06.01	유럽	Enesel SA	BULK	182k DWT	2027-2028 2
		26.06.18	아시아	Eastern Pacific Shpg	CONT	6k TEU	2028 2
	Chizhou Tianyu SB	26.02.11	중국	Rugao Port Shipping	CONT	1k TEU	2027 1
	CMI (Weihai)	26.04.01	아시아	Eastern Pacific Shpg	PTCT	7k Cars	2029 3
	CMI (Yangzhou)	26.04.01	아시아	Eastern Pacific Shpg	PTK	50k DWT	2029 3
	Unknown Yard China	26.07.01	유럽	DEME Offshore	OFF-SUPP	25k GT	2029 1
	Qidong Qianyao HI	26.06.30	중국	YZJ Maritime	PTK	50k DWT	2028-2029 2
일본	Wuhu (Nantong)	26.01.01	Unknown	Unknown	BULK	82k DWT	2029 2
		26.03.01	유럽	Aqmaris Gemi	PTK	50k DWT	2028 4
		26.04.15	유럽	Union Maritime	BULK	215k DWT	2029 2
		26.05.01	아시아	Pioneer Tanker	PTK	50k DWT	2029 6
		26.06.21	유럽	Navios MLP	TK	319k DWT	2029 2
		26.06.15	유럽	Union Maritime	BULK	215k DWT	2029 2
	Asakawa Shipbuilding	26.06.01	아시아	Eastern Pacific Shpg	GASC	26k DWT	2028 1
	Namura Shipbuilding	26.06.01	아시아	Eastern Pacific Shpg	BULK	182k DWT	2029 1



선가, 실적, 생산능력

▲ 신조선가치수 2주 연속 소폭점 상승해 185.44p. VLGC 상승 견인

중형 벌크선 신조선가가 올랐고, VLGC가 113.5백만달러로 2주 연속 0.5백만달러씩 상승
중고선가치수도 213p로 오름

△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J Ocean HI에 매각 완료. 벌써 아프리카막스 수주설

HD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가 조선 시장 호조에 힘입어 전면적인 선박 건조에 복귀할 예정
2017년 마지막 선박을 인도한 후 가동을 중단했던 해당 조선소는 새로운 소유자인 J Ocean Heavy Industries 산하에서 올해 말까지 전체 선박 건조 작업을 재개
J Ocean Heavy Industries는 한국 사모펀드인 Ecoprime Marine Pacific과 HJ중공업의 합작법인. Ecoprime Marine Pacific은 HJ중공업의 최대 주주이기도 함
또한 역명의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aframax/LR2 PC선 신조선 최대 4척을 잠정 수주
J Ocean Heavy Industries는 구매자 신원이나 인도 일정을 밝히지 않았으나, 해당 114k-DWT PC선 설계는 HJ중공업이 개발한 것이라고 언급
해당 선박들은 원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석유 제품을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상황에 따라 화물 전환이 가능
해당 LR2 PC선들은 기존 설계 대비 연료 효율이 10% 이상 높고, IMO Tier III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및 EEDI Phase 3 요건을 충족
J Ocean Heavy Industries는 Ecoprime Marine Pacific이 지난 3월 HD현대중공업과 합의각서를 체결한 이후 신조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현재 수주 잔고가 없어 빠른 건조 슬롯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선주들의 강한 관심을 끄
해당 조선소는 과거 HD현대중공업이 VLCC를 건조했던 곳으로, 초대형 선박 건조 역량을 보유
HD현대중공업은 지난 금요일 공시를 통해 3월 합의각서에 이어 군산조선소를 Ecoprime Marine Pacific에 780십억원(505백만달러)에 매각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확인
이번 거래는 조선소 부지 및 건물, 기숙사, 기술교육원, 동산 및 기타 관련 시설을 포함한 모든 유형자산을 포괄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군산조선소 활용을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운영 효율성과 전체 생산 시스템과의 통합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매각을 결정
향후 자산 이전을 통해 조선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소유권 이전은 12월로 예정되어 있음
HD현대중공업은 조선업 호황기였던 2007년에 군산조선소를 건조했으나 업계 불황으로 2012년에 가동을 중단한 바 있음
과거 5년간의 선박 건조 가동 기간 동안 해당 조선소는 22척의 VLCC를 포함해 총 92척의 선박을 인도
이후 조선 시장이 회복되면서 HD현대중공업은 선제 블록 제작을 위해 2022년 조선소를 부분 재가동했으며 현재도 블록을 생산 중
☞ 양쪽 모두에게 윈윈이기를 바랍니다.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그린십

▷ 대체 연료 추진선 발주 감소

DNV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대체 연료 신조선 발주는 137척으로, 2025년 상반기 155척 대비 감소
2024년 상반기 179척 이후 2년 연속 하락세
LNG D/F 선박은 73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컨테이너선 42척과 자동차 운반선 21척이 대부분을 차지
반면 LPG/에탄 운반선은 55척으로 전년 동기 15척 대비 크게 증가
대형 LPG 운반선에서 LPG D/F가 사실상 표준 사양으로 자리 잡은 영향으로 분석
기타 발주는 메탄올 D/F 2척, 에탄올 추진선 2척, 암모니아 연료선 4척, 수소 사용 설계선 1척으로 구성
올해 현재까지 LNG 연료선 61척, 메탄올 연료선 38척이 인도됐으며, Exmar LPG의 46k-CBM Antwerpen호는 세계 첫 대양항해용 D/F 암모니아 선박으로 인도
6월에는 총 15척이 발주됐으며 LNG D/F 자동차 운반선 9척, 액화 CO2 운반선 1척, LPG/에탄 운반선 5척으로 구성됨. LNG 벙커링선도 2척 추가 발주돼 상반기 누적 계약은 7척
DNV는 연료별-선종별 발주 흐름이 경제성, 연료 조달 여건, 규제 환경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으며,
선주들이 각자 사업 구조와 우선순위에 맞춰 다른 탈탄소화 경로를 선택하고 있다고 평가

△ 일본 JERA, 친환경 연료 사업 추진할 싱가포르 자회사 설립

일본 JERA는 LNG, 업스트림, 저탄소 연료, 해운 자산을 통합 관리할 싱가포르 기반 자회사 JERA Global Energy Solutions(JERA GES)를 설립
JERA GES는 장기 LNG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암모니아-수소 등 저탄소 연료 사업을 추진할 계획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되 일본의 에너지 공급 안보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전략
본사는 싱가포르에 두며 일본 본사 및 해외 투자 지역과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
JERA의 발전사업과 일본 내수 에너지시장 기능과도 긴밀히 연계될 예정
기존 LNG선 운전을 담당해온 JERA Global Markets와 협력해 LNG 포트폴리오를 공동 관리
장기 계약 기반의 안정성과 단기 트레이딩 역량을 결합해 포트폴리오 유연성과 성장성을 높일겠다는 구성
초대 CEO에는 Irtiza Sayyed가 임명됐으며, Ryosuke Tsugaru 최고 저탄소 연료 책임자가 일본 본사에서 전략 방향을 지원
JERA는 이번 조직 개편이 글로벌 LNG-저탄소 연료 사업 확대를 위한 운영 모델 강화 조치라고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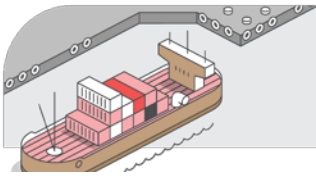
▶ LNGc

▲ HD현대중공업, TEN으로부터 LNG선 1척 수주

TEN은 HD현대중공업에 LNG선 1척을 추가 발주하며 LNG선 잔고를 2척으로 확대
이번 선박은 2029년 1분기 인도 예정이며, 신조선가는 392.2십억원으로 254.4백만달러 수준
지난 2월 발주한 2028년 인도분 LNG선의 옵션 물량으로 파악. TEN은 7년간만에 LNG선 2척을 발주한 셈
2007년부터 운영해온 LNG 사업을 확대하는 배경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수요 증가와 LNG의 대체 에너지원 역할 확대를 제시
이번 발주로 TEN의 전체 신조 잔고는 20척으로 늘어남. VLCC 3척, 154k-DWT 셔틀 탱커 10척, LR1 5척, LNG선 2척으로 구성
한편 TEN은 7월 말 삼성중공업에서 첫 번째 셔틀 탱커 Anfield DP를 인도받을 예정
해당 선박은 미국 오일 메이저와 최소 10년, 옵션 행사 시 최대 20년의 장기 옵션 계약을 확보한 상태

▲ HD한국조선해양, BW LNG로부터 LNG-FSRU 1척 수주

HD현대중공업은 아시아 소재 선사(BW LNG로 파악)와 170k-CBM FSRU 1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2029년 5월 인도물의 신조선가는 319.7백만달러
BW LNG의 FSRU 발주는 인도네시아 동자바 JIPE LNG 터미널 프로젝트와 연계
BW Group은 6월 말 PT AKR Corporindo와 JV인 PT Andalanesa Energi Primer를 설립했으며,
JV는 HD현대중공업에 FSRU를 발주해 2029년 3분기 가동을 목표로 LNG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
BW LNG는 현재 FSRU 4척을 운용 중임
HD현대중공업은 제한적인 FSRU 신조 시장에서 수주를 주도 중인데,
최근 Excelerate Energy항 FSRU를 인도했고, 2027년 인도 예정인 폴란드 Gaz-System항 MOL FSRU도 건조 중
한편 HD한국조선해양은 392.2십억원 규모 LNG선 1척도 수주



▲ TotalEnergies의 모잠비크 LNG선 인도 시점 또 연기

TotalEnergies의 동아프리카 Mozambique LNG 프로젝트 주주들이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17척의 LNG선 신조선 인도시기를 연장 200억달러, 12.8-MTPA 규모 프로젝트에, LNG선 슬롯을 확보 중인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올해 9월까지 선박 인도시기 연장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라 선박 인도 시점은 2029년과 2030년으로 밀려날 것으로 파악

당초 선박 건조를 위해 선정된 3곳의 선주들(MOL, NYK, K LINE)은 오랫동안 예약된 슬롯을 확정하기까지 원래 7월까지의 기한을 가지고 있었음

양 조선사의 2029년 인도 슬롯의 여유가 없어,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 슬롯을 얼마나 더 열어둘지 의문

총 4.3십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17척의 LNG선 신조선 인도시기는 2020년 잠정 주문된 이후 여러 차례 조정되어 올

TotalEnergies는 Cabo Delgado 주 Afungi 부지 인근의 치안 악화로 2021년 4월 선언했던 force majeure를 해제하고 올해 1월 Mozambique LNG 프로젝트를 공식 재개

TotalEnergies가 수립한 슬롯 예약 계획에 따라 HD현대중공업에 9개 슬롯, 삼성중공업에 8개 슬롯이 예약되었음

초기에는 HD현대중공업 슬롯 중 MOL이 5개, K Line이 4개를 배정받았었음

삼성중공업의 8개 슬롯은 NYK와 Maran Gas Maritime이 나누어 가졌으나,

이후 Maran Gas Maritime이 조용히 프레스에서 빠짐에 따라 이 그리스 선주의 4개 LNG 슬롯은 일본 선주 3사가 나누어 가질 것으로 예상

탄자니아 국경과 인접한 모잠비크 북부 지역 펜인술라의 7,000 헥타르 규모 Afungi 부지에서 건설 작업이 시작

프로젝트가 올해 1월 재승인된 이후 해당 지역에서 폭력 및 공격 사건이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으나,

개발을 중단했던 2021년 당시 수준의 규모는 아닌 것으로 보임

Mozambique LNG 지분구조는 TotalEnergies 26.5%, 일본 Mitsui 20%, 모잠비크 국영 ENH 15%, Bharat Petroleum, Oil India, ONGC Videsh가 각각 10%, 태국 국영 PTTEP 8.5% 보유

▲ Shell 글로벌 LNG 수요 2050년 700MTPA로 +65% 증가 전망 제시

Shell은 천연가스의 안정화 역할을 바탕으로 글로벌 LNG 수요가 2050년까지 65% 증가해 연간 약 700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

수요 증가는 아시아가 주도하고, 중동·아프리카도 소비 확대가 예상

2030년까지 약 180MTPA의 신규 LNG 공급이 시장에 유입될 전망이며,

미국이 최대 공급 확대국으로 2025년 글로벌 증설의 20MTPA 이상을 차지

다만 남부·동남아시아의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재기화 설비와 파이프라인 등 수입 인프라 투자가 필요

2025년 글로벌 LNG 거래량은 422백만톤이었으나,

올해 호르무즈 해협 차질로 글로벌 월간 공급의 약 20%가 영향을 받으며 스팟 가격과 아시아 수요에 부담이 발생

중동 지역에서는 60백만톤 이상의 공급 차질 가능성이 거론

북미 신규 액화설비 가동, 기존 설비 효율 개선, 아시아 수입 증가 둔화가 일부 완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호르무즈 해협 운항이 원활해 정상화되면 2026년 LNG 물동량은 전년 수준에 머문 뒤 2027년부터 다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Shell은 장기 수요를 충족하려면 현재 건설 중인 프로젝트 외에도 2030~2040년대 약 200MTPA의 추가 액화능력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

▲ 유럽과 아시아 LNG 확보 경쟁 심화 예상

엘니뇨에 따른 고온·가뭄으로 아시아 냉방 수요와 가스발전 수요가 늘고, 수력발전 감소까지 겹치며 LNG 가격 변동성 확대 전망

유럽 가스 재고도 50% 미만 수준으로, 유럽 바이어의 재고 보충 수요가 본격화되면 아시아와의 LNG 확보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 있음

카타르 LNG 생산 정상화에는 미국·이란 분쟁이 조기에 완화되더라도 약 2~3개월이 필요할 전망이며, 북극 지역 시 LNG 가격 강세가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음

중장기적으로 LNG 공급 확대는 미국 Gulf Coast에 과도하게 집중될 전망

FIID 원로 프로젝트 기준으로 2035년 전 세계 LNG 공급의 3분의 1 이상이 미국 Gulf Coast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

수요 측면에서는 동남아·남아시아가 경제·인구 성장과 연대 가스 생산 감소로 바탕으로 중국보다 더 큰 LNG 수요 성장 지역으로 부상할 전망

반면 중국은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확대, 자체 가스 개발 및 탈탄소화 영향으로 2033~2034년 이후 LNG 수요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 대두

▲ 2026년 LNG선 신조선시장 결산: 중국 선전

2026년 상반기 LNG선 신조선 시장은 최소 59척이 발주되며 예상보다 강한 흐름

확정 정기용선 기반 물량, 프로젝트 선대 교체, 투기 발주가 혼재했으며,

중국 조선소가 전체의 40% 이상을 수주. 중국 물량은 Hudong-Zhonghua와 Jiangnan이 전량 확보

Eastern Pacific Shipping은 Jiangnan에 첫 LNG선을 발주했고

Nigeria LNG 해운 자회사도 Hudong-Zhonghua에 첫 신조선을 맡김

174k-CBM LNG선 신조선가는 적당 약 250백만달러 수준의 고점을 유지 중

주요 고객은 약 245백만달러 수준에서 계약한 것으로 알려짐. Jiangnan 발주분은 한국 대비 적당 25백만달러 이상 낮은 것으로 전망

반면 NYK와 Ocean Yield의 200k-CBM LNG선 8척은 Cheniere 용선 기반으로 적당 약 260백만달러에 계약

BW LNG는 5월에 3백k 설계의 177k-CBM LNG선 1척을 적당 254백만달러에 발주했고, 6월 말에는 FSRU 1척도 추가 계약

2029년 인도 슬롯은 대부분 소진된 조선소들은 2030년 슬롯을 제안하는 상황

하반기 LNG선 발주는 추가 50척까지 가능하다는 전망과 20척 수준으로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림

Mozambique LNG의 17척 발주 발표 시한은 9월로 재연기됐고,

Woodside-ExxonMobil 관련 입찰은 2027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음

QatarEnergy Phase 3도 중동 분쟁 영향으로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며,

Adnoc Logistics & Services의 중국 조선소 옵션 4척 확정 여부도 주요 변수로 남아 있음

▲ 올해 LNG선 인도 증가가, 중동 전쟁 충격 상쇄

Shell은 올해 중동 갈등에도 미연항 중동 LNG 물량과 사상 최대 규모의 LNG선 신조 인도 덕분에 해운시장 충격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

6월 말 기준 40척 이상이 인도됐고, 연간 인도량은 약 120척에 달할 전망

Tom Summers 부사장은 운임 반응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보다 차분했다고 설명

중동 구매자들의 선적 차질로 일부 LNG선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풀렸고, 늘어난 선박이 대서양 분지-태평양 분지 화물 이동과 아시아 공급을 지원했기 때문

이반 사태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세 번째 시장 충격이라고 언급

다만 유럽이 2022년 이후 확충한 FSRU와 포트폴리오 유연성 덕분에 시장 적응력이 높아졌다고 평가

공급 측면에서는 카타르·UAE 물량이 감소한 반면 미국은 증설을 지속

수요는 이집트가 소폭 증가했고 유럽은 정체, 중국은 파이프라인 가스 및 자국 생산 증가로 LNG 수입 전망이 하향 조정

2026년 유럽 가스 공급의 약 25%를 미국산 LNG가 차지할 전망. 미국산 LNG의 약 70%가 유럽으로 향하는 흐름

Shell은 2020년대 말 LNG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시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봄

2030년대에는 목적지 유연성이 높은 미국산 LNG가 대서양 수요를 넘어서며 화물이 아시아 등 동쪽 시장으로 이동해 LNG 해운 수요를 뒷받침할 전망

▲ Venture Global은 LNG선 건조 위한 대출 확보

Venture Global의 해운 자회사 Venture Global Shipping Holdings는 Deutsche Bank와 ING Capital로부터 2032년 만기의 1.5십억달러 대출을 확보

자금은 Venture Global LNG가 발주한 LNG선 9척의 건조대금에 사용될 예정

올해 하반기 LNG선 2척 추가 인도에 맞춰 추가 트랜치 대출도 활용 가능하며, 원리금은 20년 선형 조정 기준의 분기 상환 구조임. 금리는 담보 SOFR+2%p 수준

대출은 LNG선 9척, 선박 저당권, 용선 수익 및 Venture Global Commodities와의 나용선 계약을 담보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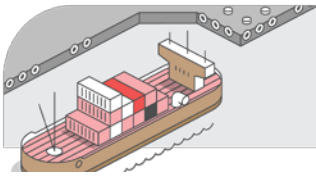
용선 계약 종료·취소 시 의무 조기상환 조항도 포함

Venture Global은 최근 LNG 판매와 자금조달을 병행 중임

EnBW에는 기존 계약 외 올해부터 5년간 0.82-MTPA 추가 공급을 약정. Atlantic-SEE LNG에는 2030년부터 공급량을 1-MTPA로 확대

회사는 6.625% 금리의 2.25십억달러 선순위 담보채 발행을 통해 2028년 만기 8.125% 채권 차환도 추진

현재 대형 LNG선 6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한화오션에서 2척을 추가 인도받을 예정



▲ QatarEnergy NFW 해상 EPC 입찰 개시

QatarEnergy LNG가 North Field West(NFW) LNG 확장을 위한 핵심 해상 EPCI 입찰을 개시
 NFW는 카타르 North Field와 이란 South Pars로 이어지는 세계 최대 비수반 가스전의 세 번째 LNG 확장 단계
 이번 입찰은 최소 4기의 해상 WHP topsides EPCI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 분쟁으로 지연된 뒤 재개
 수십억달러 규모 계약은 올해 말 발주될 전망이다. 이후 해상 파이프라인 패키지도 별도 발주될 예정
 해상 자켓은 앞서 McDermott International이 수주
 NFW가 완료되면 카타르 LNG 역화능력은 현재 77MTPA에서 142MTPA로 확대
 QatarEnergy는 2024년 NFW를 통해 최소 16MTPA 증설 계획을 발표
 지난 2월 Technip Energies-CCC-Gulf Asia Contractor JV가 16MTPA 규모 mega-train 2기와 가스처리-NGL 회수-헬륨 추출 설비를 포함한 육상 EPC를 수주
 전체 프로젝트 비용은 액화·저장·해상 설비를 포함해 20십억달러 이상으로 추정
 다만 지역 내 공사비와 보험료 상승으로 실제 투자비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
 ⇒ 전쟁에 복구해야할 설비들도 많지만, 기존 추진 사업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 ANDOC의 호르무즈 우회하는 East Coast LNG. 6개 업체 제안서 제출

ANDOC는 호르무즈 해협 폐쇄 리스크를 우회하기 위해 푸자이라에 4MTPA 규모 신규 LNG 액화시설을 건설하는 East Coast LNG 프로젝트를 추진
 중동 전쟁으로 해협 통항이 사실상 막히며 ANDOC Gas가 지난 3월 LNG 감산을 겪은 것이 직접적 배경
 총 투자비는 5십억달러 이상으로 추정
 이번 주 최대 6개 업체-컨소시엄이 설계 경쟁입찰 제안서를 제출
 삼성E&A, McDermott, Saipem, Technimont, Wilson Engineering, Technip Energies-NMDC Energy-JGC 컨소시엄 등이 참여
 ANDOC는 다음 달 3개사를 선정해 병렬 설계를 진행하고, 약 8개월 후 EPC 가격 제안서를 받을 계획
 공사 범위는 LNG 액화시설뿐 아니라 Habshan 가스전~푸자이라 연결 신규 가스관과 Habshan 압축기 증설을 포함
 ANDOC Gas는 현재 Das Island 6MTPA LNG 터미널을 운영 중이며,
 9.6MTPA Ruwais LNG도 건설 중이나 모두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의존함
 Ruwais는 2024년 6월 FID 이후 Technip Energies-JGC-NMDC Energy JV에 5.5십억달러 이상 EPC 계약을 발주한 상태
 푸자이라 LNG는 오만만에 직접 접한 입지로 해협 리스크를 피할 수 있어, UAE의 아시아-유럽 대상 장기 LNG 수출 유연성을 높이는 전략적 프로젝트로 평가
 [06월4주] ▲ ANDOC는 호르무즈 해협 우회 목적의 'East Coast LNG' 입찰 개시

△ ADNOC, 탈 중동으로 Rio Grande LNG 지분 인수

ADNOC의 해외 투자-저탄소 에너지 자회사인 XRG가 미국 텍사스 Rio Grande LNG 프로젝트의 train 4-5 지분 7.6% 인수
 XRG는 앞서 train 1~3 지분 11.7%도 확보한 바 있어, 현재 건설 중인 5개 액화 train 전체에 지분을 보유하게 됨
 거래 금액은 공개되지 않음
 Rio Grande LNG는 NextDecade가 개발 중인 미국 LNG 수출 프로젝트로, 1차 5개 train 완공 시 총 액화능력은 약 30MTPA에 달함.
 첫 LNG 생산과 수출은 2027년 시작될 예정이며, 이후 추가 train 증설도 계획
 XRG는 북미를 가스-화학 포트폴리오 확대의 핵심 성장 지역으로 보고 있음
 미국의 풍부하고 저렴한 가스 공급을 기반으로 글로벌 LNG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Rio Grande LNG 투자를 전략적으로 평가
 이번 투자는 ADNOC이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과도 연결
 지난 3월 해협 통항 차질로 ADNOC Gas가 LNG 생산을 조정한 이후, ADNOC는 미국 LNG 지분 투자 확대와 푸자이라 신규 LNG 수출시설 추진을 병행하며 수출 경로와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중

▷ 러시아 LNG 아시아행 늘림

러시아는 여름철 북극해 항로(NSR) 개방과 신규 확보 LNG선을 활용해 아시아행 물량을 늘리고 있음
 Arctic Express는 무르만스크 인근 Saam FSU에서 선적을 마쳤고, Arc7 LNG선 Christophe de Margerie와 Eduard Toll도 북극해 항로를 통해 동진 중
 Christophe de Margerie는 제재 대상 Arctic LNG 2에서, Eduard Toll은 Yamal LNG에서 화물을 실은 것으로 파악
 Eduard Toll은 프랑스 Dunkerque LNG 터미널 도착 신호를 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북부 빌즈스키 해협 방향으로 이동 중인 모습
 러시아 그림자 선단으로 편입된 LNG선 4척도 아시아에 첫 화물을 공급
 Mercuriy, Kosmos, Orion은 PipeChina Beihai LNG 터미널에 러시아산 LNG를 하역했고, Luch는 아시아로 향해 중
 해당 4척은 오만 Asyad Shipping 출신으로 이름과 국적을 변경했으며, 모두 이달 영국 제재 대상에 포함
 EU는 2027년 1월부터 러시아산 LNG 수입 금지 2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나,
 일부 유럽 항만 관계자들은 금지 조치가 미국산 LNG 의존도를 과도하게 높일 수 있다고 우려

▷ ADNOC의 노후 LNG선 호르무즈 해협 통과

ADNOC Logistics & Services의 137k-CBM LNG선 Mubarak호(1996년 건조)가 공선 상태로 호르무즈 해협을 서항 통과
 최근 공역 이후 LNG선의 조심스러운 통항 재개 움직임이 나타남
 선박은 AIS를 끈 채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두바이 연안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
 Mubarak호는 미국-이란 간 14개 항 MOU 이후 다시 발생한 공격 사태 이후 해협을 통과한 첫 LNG선 중 하나
 평화 기대가 높았던 시기에는 QatarEnergy 관련 LNG선들이 AIS를 끈 채 운항했으나, 상선 공격 이후 통항이 다시 위축됐고 지난주에는 최소 1척이 회항한 바 있음
 노후 스틸터빈 LNG선인 Mubarak호는 분쟁 이후에도 비교적 먼저 운항에 나서지는 선박
 현재 Ras Laffan 인근에는 선적 재개와 생산 확대를 기다리는 공선 LNG선들이 대기 중이며, 인도-파키스탄 인근 아라비아해에도 대기 선박이 많은 상황
 Poten & Partners는 중동 생산 차질로 2026년 LNG 공급 손실이 46백만톤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
 다만 Shell은 북미 신규 액화설비 가동, 기존 설비 효율 개선, 아시아 수입 둔화가 공급 감소 영향을 일부 상쇄하고 있다고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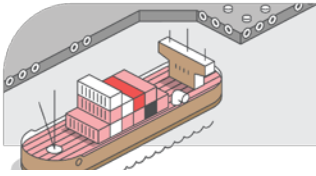
▷ Eni와 Mercuria는 합작 법인 설립

Eni와 Mercuria가 원유-바이오연료-천연가스-LNG 트레이딩 및 마케팅 사업을 통합하기 위해 50:50 합작 법인 설립
 신설 법인은 국제 트레이딩 허브를 기반으로 물류-인프라 권리까지 포함하는 독립 지주회사 구조로 운영될 예정
 Eni는 이를 통해 트레이딩 수익성, 현금흐름, 자산 최적화 역량을 강화하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시장에서 가치 포착을 확대하려는 전략
 Mercuria 역시 실물 에너지 흐름, 물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결합해 공급망 전반의 수익 기회를 키울 계획
 2022년 에너지 위기 이후 공급 차질과 지정학 리스크로 트레이딩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BP, Shell, TotalEnergies 등 메이저와 전문 트레이더의 트레이딩 부문이 실적의 핵심 축으로 부상
 합작 법인 설립은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에너지 트레이딩 선도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

▶ 가스선/암모니아운반선

▲ HD현대삼호, HMM으로부터 VLGC 2척 수주

HD현대삼호는 90k-CBM급 D/F LPG선 2척 수주. 2029년말 인도물의 신조선가는 118백만달러
 조선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선박을 발주한 아시아 선주는 HMM으로 확인
 원자재 트레이더인 Mercuria가 이 선박들을 7년간 나용선 계약으로 용선하기로 합의. 1~3년의 연장 옵션이 포함
 HMM이 발한 총 용선 계약 가치는 203백만달러이며, 1척당 약 101.5백만달러 수준
 2026년 현재까지 HD한국조선해양은 131척, 총 15.14십억달러를 수주하며 연간 목표치인 23.31십억달러의 65%를 달성
 HD한국조선해양의 잔고는 LNG선 16척, 컨테이너선 28척, LPG/암모니아 운반선 40척, 원유 탱크 11척, PC선 33척, PCTC 2척, 분쇄빙선 1척으로 구성
 [06월4주] ▲ HMM, 10척의 신조선 발주(현대 가스선 포함) + 항후 탱커, LNG선 추가 발주



△ HMM은 HD현대상호에 발주한 VLGC 용선 계약 확보

HMM이 Mercuria Shipping과 최근 발주한 D/F 90k-CBM VLGC 2척에 대해 7년 내용선 계약을 체결. 용선자는 계약별 1~3년 연장 옵션 보유 중 계약 가치는 31.8십억원(203백만달러)이며, 1호선은 2029년 7월부터 용선 시작 예정
HD현대상호가 2029년 상반기 인도할 VLGC 2척으로 파악. 선가는 적당 약 115백만달러 수준
HMM은 2025년 LPG 운송 시장에 재진입한 뒤 중형 LPG선 인수, BGN과의 합작법인 설립 및 VLGC 장기용선 등을 통해 선대를 확대 중
이번 계약은 컨테이너선 중심 사업구조에서 LPG·탱커·벌커·LNG선 등 에너지 및 벌커 부문으로 다각화하는 전략의 일환

▶ 컨테이너선

▲ AP Moller-Maersk 가이드선 상황

AP Moller-Maersk는 극동 중심의 건조한 컨테이너 수요와 스팟 운임 상승을 반영해 2026년 EBITDA 가이드선을 기존 4.5~7.0십억달러에서 8.0~10.0십억달러로 약 30억달러 상향
EBIT 전망도 최대 1.5십억달러 적자 가능성에서 2.0~4.0십억달러 흑자로 전환했고,
FCF 적자 전망도 3.0십억달러에서 1.5십억달러로 축소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 성장률 전망은 기존 2~4%에서 약 +4%로 상향했으며,
올해 누적 물동량 증가율이 5%를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성장 둔화를 예상하는 것으로 해석
가이드선 상향 후 Maersk B주는 코펜하겐 증시에서 4% 상승했고, Zim 등 경쟁 선사 추가에도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
다만 증권사들은 최근 시장 강세가 조기 피크시점 및 운임 급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고 지적
신조선 인도에 따른 선박 증가와 수에즈 운하 통항 정상화 시 수급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은 리스크로 제시

▶ 탱커

▲ 팬오션 VLCC 2척 추가 발주. 한화오션 수주 시장 추정

한국의 팬오션은 신조선 수주를 추가하며 VLCC 부문 확장에 박차
2030년 9월까지 인도 예정인 ammonia-ready 300k-DWT 탱커 2척을 발주했다고 공시
팬오션은 선박 건조 조신소를 밝히지 않은 채 계약 가치를 377.6십억원, 적당 122.25백만달러로 밝힘
북수의 조선업체 소식들은 한국의 한화오션을 건조 조신소로 지목
팬오션은 이 선박들이 ammonia-ready로 건조될 것이며, 암모니아 연료 역량 설비의 장착 여부는 대체 연료 시장의 발전 상황에 맞춰 결정될 것이라고 밝힘
이번 계약은 팬오션이 올해 체결한 3번째 VLCC 신조 투자. 해당 부문의 총 지출액은 약 890백만달러에 이를
지난해 3월 팬오션은 중국의 Qingdao Beihai Heavy Industry에 2029년 인도 예정인 319k-DWT VLCC 1척을 약 122백만달러에 주문
이어 6월에는 한화오션에 적당 약 131백만달러의 가격으로 VLCC 4척을 주문. 인도는 2030년 2월까지
해당 가격은 Clarkson's Shipping Intelligence Weekly의 최신 VLCC 신조선가 벤치마크보다 적당 약 0.5백만달러 높은 수준
팬오션은 현재 한화오션에 주문한 VLCC 6척과 Qingdao Beihai에서 건조 중인 1척 외에도,
지난해 HD현대중공업에서도 2027년 6월과 8월에 인도 예정으로 VLCC 2척을 건조 중. 당시 신조선가는 적당 127백만달러
팬오션은 한화오션에 최초 주문한 VLCC 4척에 대해 국내 정유사인 SK에너지 및 SK인천석유화학과 20년 장기 용선 계약을 체결. 용선계약 규모는 총 2.47조원(1.62십억달러)으로 평가
이번 VLCC 주문은 탱커 사업을 확장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임
올해 초 팬오션은 SK해운으로부터 약 676백만달러 규모의 거래를 통해 10척의 VLCC를 인수
인수 전 팬오션의 VLCC 선대는 단 2척에 불과했음. 팬오션은 해당 SK해운 선박들을 5월 말부터 인도받기 시작한
이 외에도 팬오션은 한국과 중국에서 newcastlemax 벌커 4척, MR 탱커 3척, ultramax 벌커 3척을 건조 중
팬오션은 VLCC, LNG선, MR 탱커, 벌커선 등을 포함해 총 116척의 다각화된 선대를 운항하고 있으며, 드라이 벌커선이 재화중량톤수 기준 선대의 90% 가까이를 차지

▲ 삼성중공업, Advantage Tankers로부터 수에즈막스 2척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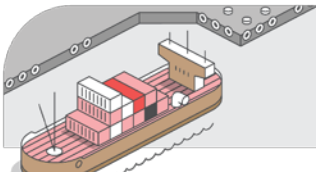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와 176.5백만달러 규모 탱커 건조 계약을 공시. Advantage Tankers는 장기 용선 계약을 기반으로 발주한 것으로 확인
선박들은 2029년 인도 예정이며, 신조선가는 88.3백만달러로 공시
이번 발주로 Advantage Tankers의 수에즈막스 잔고는 6척으로 확대
기존 DH Shipbuilding 발주분 4척 중 2척은 2027년, 나머지 2척은 2029년 인도될 예정
이외에 VLCC도 한화오션 4척, Dalian Shipbuilding Industry Co. 2척을 건조 중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이번 선박 건조를 중국 PaxOcean Group 야드에 하청할 예정
PaxOcean은 싱가포르 Kuok Group 자회사이며, Dynacom Tankers와 Centrofin의 수에즈막스 발주에 이은 세 번째 협력 프로젝트
삼성중공업은 Kuok과 조선-해양-에너지 인프라-물류 분야 협력을 위한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한 상태
올해 신조선 및 오프쇼어 수주는 9.8십억달러로 연간 목표 13.9십억달러의 약 71%를 달성. 상선 부문은 약 30척 수주 목표의 95% 수준
▶ 글로벌 오퍼레이션(한국 외 건조)이어서, 대한조선의 91백만달러보다 낮습니다.

▽ 호르무즈 해협 개통을 앞두고, VLCC 스팟 운임 하락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걸프 주요 터미널의 선적 재개에도 VLCC 스팟 운임은 추가 하락
Baltic Exchange 기준 중동 걸프-중국 노선은 300,600달러/일로 1주일 만에 약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짐
Fearnleys는 미-이란 60일 MOU 기간 중 선적 물량 감소로 고운임을 지켜온 선주들의 버티기가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
걸프 내 생산은 일부 회복됐지만 전쟁 전 수준에는 못 미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불확실성도 지속
아시아항 선량은 WS 250 수준이 거론되며, 7월 FFA도 같은 수준에서 형성돼 단기 하한선 가능성이 제기
걸프 외곽 물량도 약세이며, 한국항 화물 1건에 10척이 경쟁하는 등 선박 과잉 조짐이 나타남
선주들은 물량 회복을 기대하며 선박을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음
수에즈 서부 배지 VLCC는 200~210척에서 175척으로 줄었지만,
수에즈 동부는 660척에서 700척으로 늘어 지역 내 선박 증가가 운임을 압박 중
다만 대서양 시장의 스팟 수요와 제한된 가용 선박은 하방을 일부 지지할 수 있음
사우디 Ras Tanura에서는 최소 5척의 VLCC가 선적 후 출항했으며,
Aramco는 아시아 판매 확대를 위해 스팟 가격을 활용 중. Bahri 선대를 통한 수송과 중국 바이어 대상 공격적 가격 제시도 병행되는 모습
중동 산유국들의 수출 프로그램 확대는 긍정적이나, 중국 수요 둔화가 부담
중국의 6월 원유 수입은 약 6.4백만bpd로 5월 평균 대비 8% 감소해, 2016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향후 운임은 저유가가 아시아 정유사의 구매를 자극할지에 달렸으며, 헤드라인 리스크에 따른 높은 변동성은 이어질 전망

△ DHT Holdings는 HD현대상호 건조 중인 신조 VLCC 2척의 설계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

320k-DWT DHT Impala는 착입 후 7월 말 인도 예정이며, 자매선 DHT Gazelle은 3분기 중 업그레이드를 위해 재입계 예정
Gazelle의 공백 기간에는 3월 한화오션에서 인도된 DHT Addax가 장기 용선 계약을 대체 수행할 예정
구체적 사양·비용은 비공개이나, 운항 인증과 상업적 유연성 제고 목적의 선체적 설계 변경으로 설명
DHT의 VLCC 4척을 한화오션과 HD현대상호에 평균 130백만달러에 발주했으며, 인도 일정은 당초 2026년 4~12월에서 2~7월로 앞당겨진 바 있음



△ 탱커 해운업, 장기 계획 수립 불가. 6개월 단위 단기 전략 접근

해운업은 지정화·관세·시황 변수가 급변하면서 기존 5개년 계획 대신 6개월 단위의 단기 전략 수립으로 이동 중
 2026년 초 Sinokor Maritime과 MSC가 VLCC 매입·용선 확대를 통해 시장 주도권을 잡았지만, 이후 호르무즈 해협 차단 등 블랙스완 발생으로 장기 계획의 유효성이 크게 약화
 호르무즈 통항은 일부 회복됐지만 여전히 불안정하며,
 Adnoc Logistics & Services의 Abdulkareem Al Masabi는 5년 전략보다 6개월 단위 대응력이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
 선주들은 장기 투자와 선대 전략을 결정해야 하지만, 특정 환경·에너지 전환 가정에 고착될 경우 급변한 시장에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음
 BP 역시 에너지전환 전략 재조정 과정에서 경영진 변화가 이어져, 해운·트레이딩 부문은 Sam Skerry가 맡게 될
 한편 글로벌 위기는 탱커 시황에는 우호적으로 작용
 지정학적 혼란이 운임을 역사적 고점으로 끌어올리며 2026년 상반기는 선주들에게 매우 높은 수익성을 기록한 시기로 평가
 다만 향후에도 선주들은 불안정한 정보와 높은 변동성을 상수로 두고 투자와 선대 운용을 결정해야 하는 환경

▶ 오프쇼어/디펜스

▲ 삼성중공업, 2Q28에 FDC 인도 계획 발표

삼성중공업은 2028년 2분기에 최초 부유식 AI 데이터센터 가동을 추진하는 상용화 일정 첫 공개
 삼성중공업은 자체 개발 중인 최초의 상업용 부유식 데이터센터(이하 FDC)를 2028년 2분기까지 인도하여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이는 emerging AI 인프라 산업 진출과 관련하여 삼성중공업이 처음으로 공식 공개한 타임라인
 Posidonia 2026에서 그리스 Capital Gas Ship Management 및 영국 Lloyd's Register와 FDC 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음
 삼성중공업은 기술 개발과 건조를 주도하고,
 Capital Gas Ship Management는 프로젝트 소싱과 투자를 담당하며,
 Lloyd's Register는 FDC 관련 규칙 및 규정 제정을 지원하기로 함
 현재 적합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탐색적 협력 단계
 기존 선박이나 오프쇼어 플랫폼을 개조하는 대신, FDC 목적으로 설계된 신조 바지를 개발 중
 해당 바지선 내부에는 데이터 홀, 전기·기계 장비, 선내 발전 시설과 함께 발전용 연료 공급을 위한 LNG 저장 탱크가 탑재
 해상이 아닌 강변이나 연안(nearshore)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며, 2028년 상용 출시를 앞두고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 중
 기술 검증 및 시장 분석 협력대안에서 열린 Innovate APAC 2026 기간 중 미국 AI 서버 전문 기업 Supermicro와 공동 개발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
 해상 및 강 환경에서 AI 서버 인프라 작동을 검증하며, 진동, 선체 운동, 염분 유입, 습도 등 서버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차단할 기술을 개발
 Lloyd's Register Advisory와 별도 계약을 맺고 북미 데이터센터 시장 수요 및 상업적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며 투자, 시장 분석, 기술 개발을 아우르는 글로벌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FDC의 강점 및 전망육상 기반 전통 데이터센터가 직면한 전력 공급 제한, 냉각 문제, 부지 부족 문제를 강이나 연안에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
 무디스 추정에 따르면 고성능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 규모는 2030년까지 최대 3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Karpowership은 HSG성동조선에 부유식 발전선 시리즈 발주

Karpowership은 한국의 삼성중공업이 관리하는 조선소에 부유식 발전선 시리즈를 주문
 HSG성동조선은 2028년 상반기에 인도할 예정이며, 4척 중 1번째 선박의 강재 절단식이 6월 15일에 진행
 인도 완료 시 이 4척은 적당 300 MW의 설비 용량을 갖춘 새로운 Sea Lion급
 Sea Lion급은 4.5미터의 얕은 흘수로 설계되어 안정적인 전력이 신속하게 필요한 국가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해안 지역에 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Karadeniz Group이 지배하는 이 회사는 지난 25년간 육상 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국가에 전력을 공급해 음
 현재 총 8GW의 발전 용량을 갖춘 45척의 부유식 발전선 선대를 운영 중
 Karpowership은 주로 capesize 벌크와 같은 노후 선박을 발전소로 개조해 사용해 왔으나,
 이번 HSG성동조선 발주를 통해 포트폴리오 내 신조선가의 비중을 확대
 Clarksons에 따르면 중국 Taizhou Sanfu에서 Karpowership을 위해 건조 중인 발전선 5척이 있으며, 이 50k-DWT 선박 5척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분할 발주
 반면 더 작은 크기의 Sea Lion 바지선은 민청하고 소규모인 배치에 맞춰 설계
 더 넓은 범위의 Karadeniz Group은 LNG분야에서도 활동. 오슬로에 상장된 또 다른 계열사 Kinetics LNG는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1GW미만 발전소에 공급할 수 있는 대형 LNG-to-FSRU 개조
 Karpowership은 LNG를 저장하고 재기화하여 전력망에 직접 분배하는 LNG선 및 LNG 터미널선 총 11척을 보유
 그중 4척은 Karmol LNG 합작법인을 통해 Mitsui OSK Lines와 공동 소유하고 있음
 ⇨ 파워십 선대를 운영하고 있는 튀르키예 Karpowership입니다. FDC와의 연결고리입니다.

▲ ENI+Adnoc과 아르헨티나 YPF는 FLNG 사업 추진을 위해, Vaca Muerta 가스전 내 지분 인수

Eni와 Adnoc 투자부문 XRG는 YPF와 함께 추진하는 Argentina LNG 프로젝트의 상류 가스 확보를 위해
 Vaca Muerta 내 Meseta Buena Esperanza, Aguada Villanueva, Las Tacanas 3개 광구 지분을 각각 32% 인수
 YPF는 36%를 보유하며 운영사를 유지
 해당 광구는 FLNG 2기, 총 12-MTPA 규모 1단계 LNG 생산에 필요한 가스를 공급하는 핵심 자산임
 각 FLNG는 6-MTPA 규모.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콘덴세이트의 현금화도 가능할 전망
 Eni와 XRG는 세계 최대급 비전통 가스전인 Vaca Muerta의 Upstream 참여를 통해 장기 가스 공급원을 확보하고, Argentina LNG 내 지분·사업적 존재감을 확대
 YPF와 파트너들은 올해 말 FID를 목표. 초기 투자비는 약 50십억달러로 추산
 3번째 FLNG를 추가해 총 LNG 생산능력을 18-MTPA로 확대하는 옵션도 검토 중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면 아르헨티나는 지역 가스 수입국에서 글로벌 LNG 수출국으로 전환할 전망
 별도로 Southern Energy 프로젝트도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두 LNG 프로젝트 공급을 위해 향후 Vaca Muerta 내 가스 시추와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전망
 ⇨ 올해 남은 3~4번째의 Western, Delfin2 다음에 2027년의 수주 파이프라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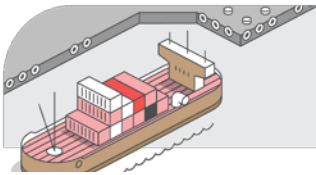
▶ 기타

△ 러시아 fsru에 증기관총 장착 확인

러시아 Gazprom 계열 FSRU Marshal Vasilevskiy에서 12.7mm Kord 증기관총과 군인 출신 인원들이 확인됐다는 보도
 러시아 가스선에서 증기관총이 공개적으로 포착된 첫 사례
 에스토니아 당국이 촬영한 사진에는 선교 주변 모래주머니 진지와 무장 배치가 담겼으며, 선박은 Kaliningrad와 핀란드만 Bolshoy Bor를 오가는 것으로 파악
 무장 목적은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 방어와 NATO·서방 국가에 대한 경고 성격이 함께 있는 것으로 해석
 서방의 승선검사나 그림자 선대 단속을 억제하려는 효과도 기대할 것으로 보임
 해당 174.1k-CBM FSRU는 영국 제재 대상이며, 최근에는 Portovaya LNG에서 선적 후 희망봉 경유로 중국 Rudong LNG 터미널까지 운항한 이력이 확인

△ Hayfin Capital Management는 15십억유로의 대규모 자금 조달

Hayfin Capital Management는 15십억유로(17.1십억달러) 이상 규모의 Direct Lending Fund V를 마감. 역대 최대 직접대출 펀드를 조성
 유럽 내 최대급 직접대출 펀드 중 하나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으며 마감 시점 기준 자금의 절반 이상을 35개 이상 기업에 집행
 최근 12개월 투자액은 7.1십억유로, 총 운용자산은 38십억유로 수준
 투자자는 연기금, 금융기관, 보험사, 국부펀드, 패밀리오피스 등으로 구성
 Hayfin은 벨크스·컨테이너선·탱커·부유식 인프라 등 주요 해운 섹터에 투자하고 있으며,
 해양 거래는 신용 트랜치와 Maritime Yield Fund를 통해 지원됨
 신규 펀드 일부도 해운 대출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Hayfin은 12척의 신조 잔고를 보유
 최근 HD한국조선해양에 LNG선 2척을 발주하며 LNG선 시장에 재진입
 해당 계약은 총 743.9십억원(501백만달러), 척당 약 250.5백만달러 수준
 Evaland Shipping으로부터 리세일 LNG선 2척도 인수한 것으로 알려짐
 최근 미국 사모신용 펀드 불안으로 투자자들이 보수적 구조를 선호. Hayfin은 폐쇄형 펀드와 기관용 에버그린 구조를 통해 장기 고정 자본을 확보하는 전략을 강화
 유럽은 은행 철수와 시장 분절화로 대출기관에 기회가 확대되고 있어,
 Hayfin은 보수적 언더라이팅과 downside 보호 중심의 금융으로 시장점유율 확대를 추진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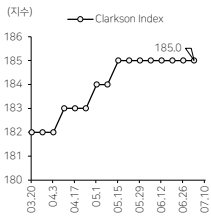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6.07.05 [82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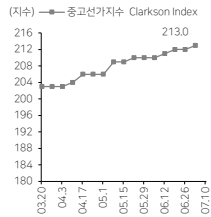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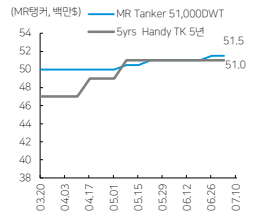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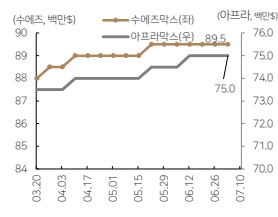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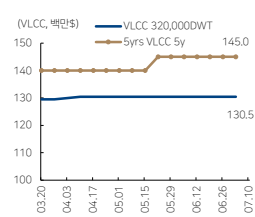
▶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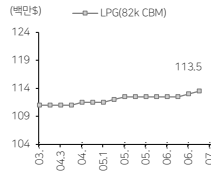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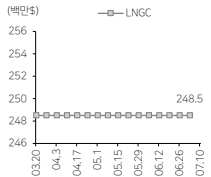
▶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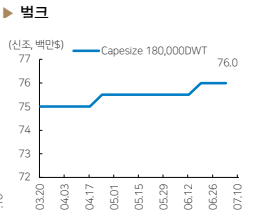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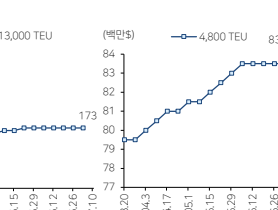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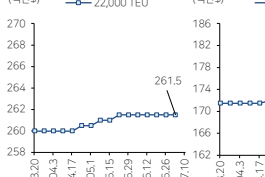
▶ 탱커



▶ 가스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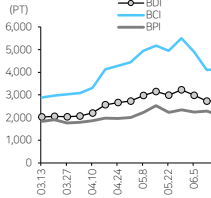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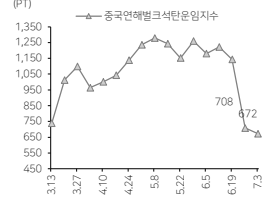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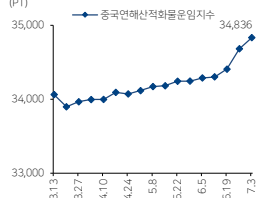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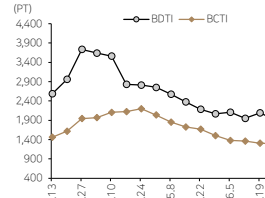
▶ 중국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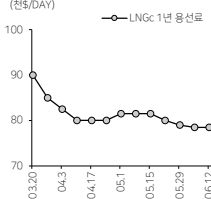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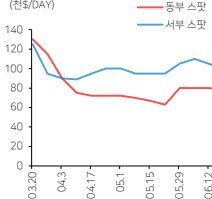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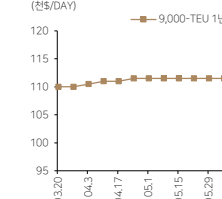
▶ LNG선 용선료(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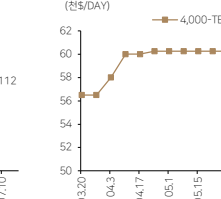
▶ LNG선 SPOT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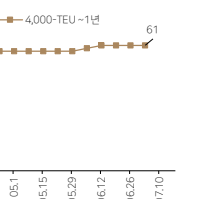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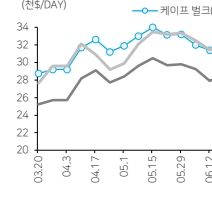
▶ 탱커 - VL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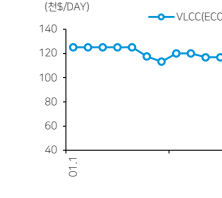
▶ 탱커 - MR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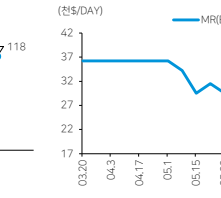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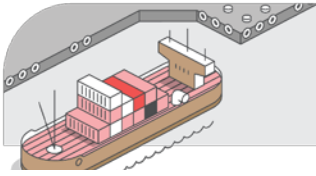


▶ 탱커 - VLCC



▶ 탱커 - MR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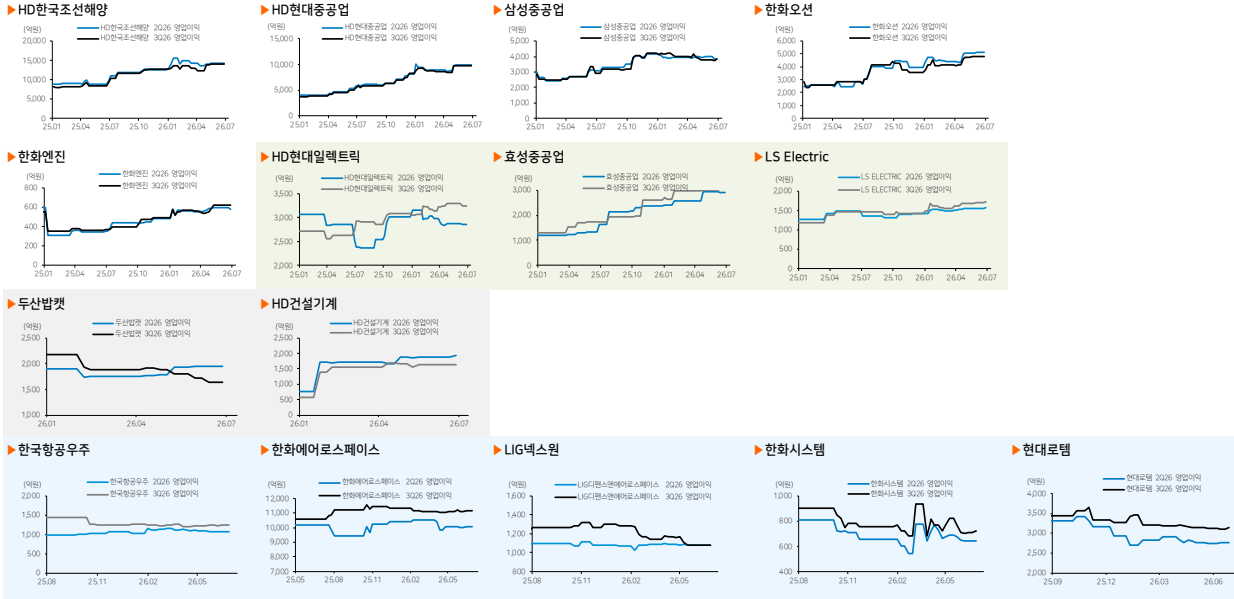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6.07.05 [829호]

DAOL 다올투자증권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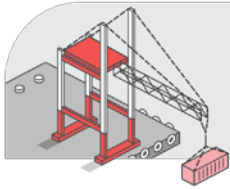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26 EPS(원)									Chang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26.06.05	26.06.12	26.06.19	26.06.26	26.07.03	2달전 대비	4주간 대비	2026 PER	증가	
조선	HD한국조선해양	48,546	49,723	48,632	47,613	49,155	49,155	49,210	49,538	50,066	5%	2%	7.2	359,500	
	HD현대중공업	25,582	25,836	25,638	25,526	29,075	28,931	28,949	28,949	29,169	4%	0%	19.8	577,000	
	삼성중공업	1,400	1,408	1,409	1,347	1,202	1,209	1,209	1,205	1,204	1%	0%	19.5	23,500	
	한화오션	4,569	4,436	4,414	4,900	5,024	5,048	5,048	5,048	5,048	5%	0%	21.2	106,900	
엔진	한화엔진	1,778	2,048	2,076	2,150	2,315	2,315	2,306	2,306	2,511	7%	8%	20.8	52,200	
	STX엔진	1,350	1,350	2,147	2,070	2,019	2,019	2,019	2,030	2,030	1%	1%	13.9	28,250	
	HD현대리엔엔진	3,188	3,540	3,535	4,170	4,255	4,255	4,255	4,255	4,255	0%	0%	15.4	65,500	
	건설기계	3,771	8,979	8,979	10,739	10,757	10,757	10,757	10,757	10,784	0%	0%	11.0	118,800	
발전/중전기	두산에너빌리티	625	576	553	466	458	459	459	459	466	0%	-2%	185.0	86,200	
	HD현대일렉트릭	26,202	27,259	27,203	27,255	27,279	27,279	27,149	27,149	27,090	1%	-1%	34.9	945,000	
	효성중공업	75,820	81,500	83,530	84,548	84,548	84,446	84,581	84,581	84,457	0%	0%	39.3	3,323,000	
	LS ELECTRIC	2,805	3,057	3,028	3,317	3,373	3,379	3,377	3,377	3,379	1%	0%	67.9	229,500	
방산/기타	한국항공우주	3,820	3,852	3,814	3,724	3,544	3,536	3,517	3,517	3,517	6%	-1%	44.5	156,6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6,281	45,371	45,694	45,592	41,622	41,622	41,533	41,533	41,533	9%	0%	28.3	1,175,000	
	LIG디펜스엔에어로스페이스	17,684	16,234	16,587	16,571	16,372	16,372	16,419	16,467	16,467	1%	1%	48.6	800,000	
	한화시스템	1,543	1,542	1,567	1,333	1,158	1,185	1,192	1,212	1,203	0%	4%	62.8	75,500	
현대로템	현대로템	9,608	8,959	8,960	8,496	8,545	8,545	8,546	8,546	8,718	5%	2%	23.0	200,500	
	현대엘리베이터	4,720	4,720	4,720	5,129	5,129	5,129	5,129	5,129	5,129	0%	0%	14.1	72,100	
피팅	성광랜드	2,308	1,800	1,600	1,767	1,756	1,773	1,767	1,767	1,767	0%	1%	15.5	27,400	
	태광	1,967	2,214	2,108	2,035	2,019	2,019	2,057	2,057	2,057	1%	2%	11.8	24,350	
	하이록코리아	4,393	4,393	4,393	4,209	4,320	4,320	4,320	4,320	4,320	0%	0%	7.4	3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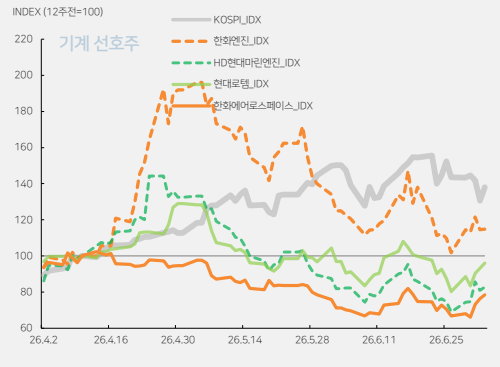
그룹	종목	2026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26.06.05	26.06.12	26.06.19	26.06.26	26.07.03	2026	2027	2026 PBR	증가	
조선	HD한국조선해양	221,424	223,597	220,839	221,363	224,388	224,388	224,388	224,388	224,836	22%	25%	1.6	1.6	
	HD현대중공업	101,655	104,207	103,841	108,874	115,267	114,699	114,507	114,293	114,291	26%	27%	5.0	5.0	
	삼성중공업	6,663	6,661	6,654	6,315	6,038	6,039	6,039	6,073	6,071	20%	25%	3.9	3.9	
	한화오션	23,641	24,039	24,071	24,935	25,072	25,091	25,091	25,092	25,092	20%	22%	4.3	4.3	
엔진	한화엔진	6,317	6,317	6,317	9,074	9,074	9,074	9,074	9,119	9,119	28%	37%	5.7	5.7	
	STX엔진	10,190	10,190	10,748	10,668	10,552	10,552	10,552	10,573	10,573	19%	19%	2.7	2.7	
	HD현대리엔엔진	14,768	17,381	17,467	18,790	18,843	18,843	18,843	18,843	18,843	23%	24%	3.5	3.5	
	건설기계	40,492	94,564	94,564	86,144	101,010	101,010	101,010	101,010	100,396	11%	12%	1.2	1.2	
발전/중전기	두산에너빌리티	12,800	12,666	12,657	12,760	12,746	12,747	12,747	12,747	12,733	4%	6%	6.8	6.8	
	HD현대일렉트릭	74,861	76,656	77,041	76,233	75,987	75,987	75,857	75,857	75,799	36%	38%	12.5	12.5	
	효성중공업	318,169	327,189	329,805	329,534	329,534	329,658	329,785	329,785	374,873	23%	29%	8.9	8.9	
	LS ELECTRIC	15,758	16,047	16,080	16,579	16,620	16,626	16,624	16,624	16,627	20%	25%	13.8	13.8	
방산/기타	한국항공우주	22,627	22,338	22,273	21,995	21,841	21,862	21,831	21,831	21,831	16%	22%	7.2	7.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13,342	232,487	233,012	230,818	224,567	224,567	224,388	224,388	224,388	19%	22%	5.2	5.2	
	LIG디펜스엔에어로스페이스	72,493	75,048	75,428	75,675	75,922	75,922	75,655	75,655	75,655	22%	26%	10.6	10.6	
	한화시스템	18,540	17,543	15,154	16,802	29,748	29,742	29,584	29,584	29,584	4%	7%	2.6	2.6	
현대로템	현대로템	36,492	35,890	35,753	36,170	36,149	36,149	36,118	36,118	36,311	24%	27%	5.5	5.5	
	현대엘리베이터	29,442	29,442	29,442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18%	19%	2.5	2.5	
피팅	성광랜드	22,498	22,020	21,902	21,927	21,908	21,940	21,877	21,877	21,877	8%	10%	1.3	1.3	
	태광	26,267	26,271	26,033	25,796	25,636	25,636	25,651	25,651	25,651	8%	10%	0.9	0.9	
	하이록코리아	41,221	41,221	41,221	41,553	41,973	41,973	41,973	41,973	41,973	10%	11%	0.8	0.8	

출처: Dataguide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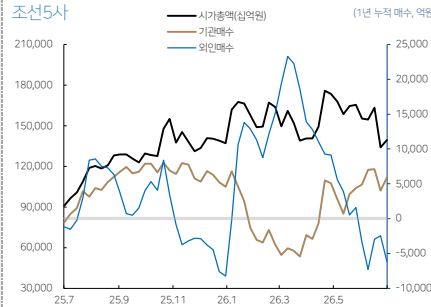
▶ 당사 선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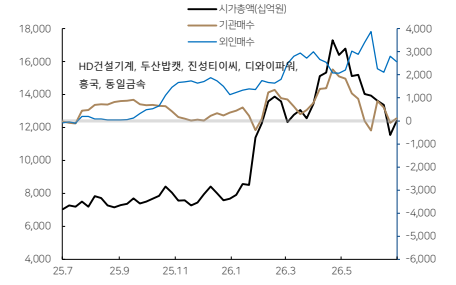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기관, 외국인 누적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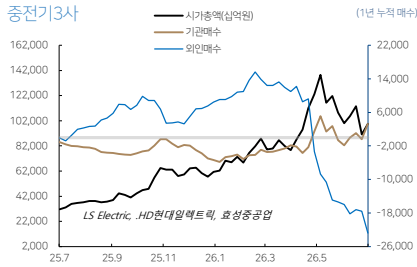
조선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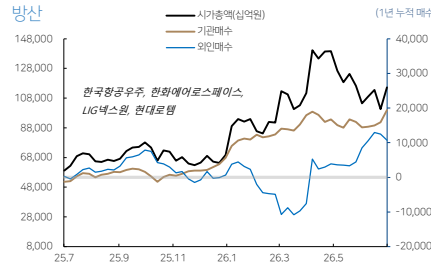
건설기계 메이커2사 + 부품4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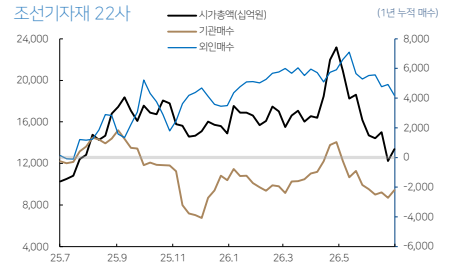
중전기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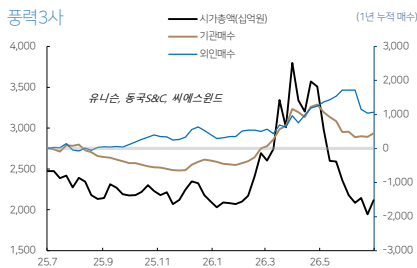
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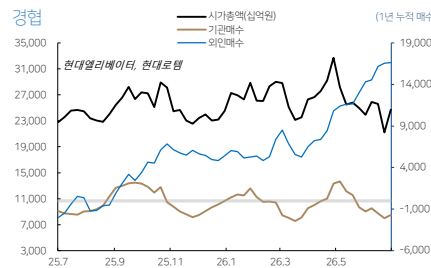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2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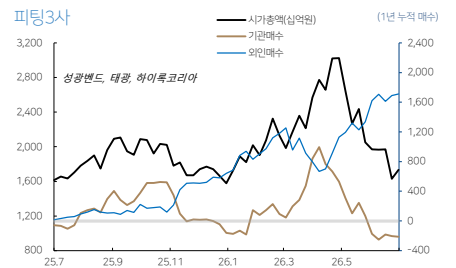
풍력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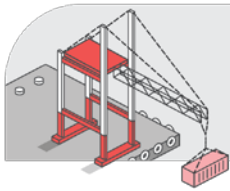


경협



피팅3사





다올 기계 ChartBook

2026.07.05 [829호]

DAOL 다올투자증권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글로벌 피어그룹 추가 흐름

대분류	시총(백만\$)	1W	1M	3M	3M 추가	1Y	3Y
인프라: 건설기계 / 부품							
건설기계	HD건설기계	3,725	8.6%	-19.9%	-8.0%	56%	39%
	두산밥캣	4,067	8.0%	-0.5%	10.4%	21%	13%
대형	CATERPILLAR	443,794	-3.4%	4.0%	38.6%	142%	293%
	KOMATSU	38,211	4.7%	-6.8%	2.5%	40%	78%
	HITACHI CM	7,135	0.1%	-0.6%	-3.4%	26%	37%
	VOLVO	71,215	4.0%	3.0%	14.1%	31%	69%
중국	SANY	25,004	5.0%	3.3%	-3.1%	2%	12%
	XCMG	14,543	2.4%	-10.1%	-18.4%	4%	28%
소형	DEERE	167,704	1.3%	5.6%	9.6%	19%	53%
	CNH	13,292	-2.8%	-2.9%	0.0%	-22%	-25%
	TAKEUCHI	2,247	1.5%	4.2%	15.3%	60%	64%
	TEREX	7,784	-5.1%	8.8%	20.8%	37%	16%
	SUMITOMO HI	4,080	2.7%	2.0%	5.5%	74%	59%
	SANDVIK	53,567	6.8%	8.2%	19.5%	86%	103%
	UNITED RENTALS	68,823	-2.1%	4.0%	49.6%	39%	153%
건설기계	디와이파워	82	4.8%	-9.1%	-15.9%	-9%	-32%
부품	진성티이씨	201	8.0%	0.1%	-12.9%	32%	11%
	우림기계	69	10.0%	-25.6%	-41.1%	56%	14%
	홍국	42	6.5%	4.5%	5.7%	4%	-15%
	동일금속	44	3.8%	1.1%	3.9%	-11%	-35%
	KUBOTA	19,376	-0.2%	-7.4%	6.3%	68%	36%
	가야바	1,015	4.4%	0.1%	-8.7%	33%	59%
	Hengli	24,058	12.4%	8.0%	27.0%	76%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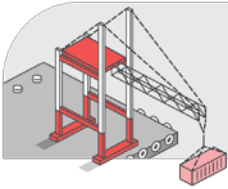
방위산업 / 항공부품							
방산/항공	한국항공우주	9,973	13.3%	5.7%	-14.5%	85%	19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9,644	17.6%	10.1%	-10.5%	51%	778%
	LIG디펜스엔에어로스페이스	11,506	8.5%	10.7%	10.7%	63%	837%
	한화시스템	9,560	6.9%	-20.0%	-36.8%	49%	417%
	아스트	143	5.5%	-9.7%	-28.2%	-7%	-80%
	퍼스텍	193	3.1%	-24.8%	-15.1%	61%	46%
	하이즈항공	24	7.2%	-13.1%	-27.7%	5%	-36%
	오르비텍	119	6.5%	-29.8%	-53.7%	31%	23%
방산/항공	Boeing	178,543	4.3%	7.6%	18.9%	5%	7%
	Airbus	186,816	7.4%	21.8%	28.5%	18%	59%
방산	LOCKHEED MARTIN	125,867	7.6%	6.6%	-11.4%	18%	19%
	Raytheon Technologies	268,327	6.0%	15.5%	5.0%	37%	105%
	Northrop grumann	77,978	9.8%	4.4%	-19.1%	9%	21%
	GENERAL DYNAMICS	101,016	7.7%	10.8%	7.7%	27%	74%
항공	BOMBARDIER	22,941	0.1%	-1.5%	34.6%	108%	394%
	EMBRAER	11,868	0.6%	16.1%	14.5%	5%	327%
항공 부품	ROLLS ROYCE	167,853	7.0%	19.6%	35.7%	56%	913%
	SAFRAN	170,682	7.2%	21.4%	28.1%	32%	165%
	SPIRIT AERO	#N/A N/A	0.0%	0.0%	0.0%	2%	36%
	TRIUMPH	#N/A N/A	0.0%	0.0%	0.0%	1%	126%
	MHI	79,286	6.3%	6.1%	-17.2%	12%	472%
	KHI	14,674	-0.6%	-0.6%	-7.2%	39%	279%
	FHI	11,183	4.8%	1.8%	-3.3%	0%	-3%
	IHI	19,256	7.4%	15.4%	-18.0%	37%	416%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추가	1Y	3Y
에너지: 피팅 / 발전 / 중전기 / 풍력								
풍력	씨에스윈드	1,161	8.5%	-7.3%	28.9%		-10%	-48%
	SK오션플랜트	626	5.9%	-5.5%	46.6%		-26%	-27%
	세진중공업	502	4.2%	-3.3%	20.9%		28%	109%
	유니슨	164	4.2%	4.2%	1.1%		-36%	-44%
	동국S&C	60	3.6%	3.1%	29.1%		-46%	-59%
	태웅	387	1.7%	0.4%	35.7%		-2%	74%
	VESTAS	28,519	8.5%	5.5%	6.5%		68%	6%
	GOLDWIND	13,600	5.4%	4.2%	-10.4%		149%	131%
	NORDEX	12,436	4.5%	12.3%	6.1%		154%	308%

중전기	LS Electric	22,849	13.7%	-4.5%	48.0%		345%	1354%
	효성중공업	20,446	7.5%	-6.4%	25.7%		277%	2651%
	HD현대일렉트릭	22,318	6.3%	-5.1%	4.2%		119%	1299%
	ABB	198,242	3.4%	2.1%	38.4%		87%	160%
	Schneider	184,898	1.5%	-1.2%	22.2%		26%	80%
	WEG	37,744	-0.9%	11.2%	-2.0%		8%	26%
	Crompton Greeves	1,832	-1.6%	-0.7%	16.6%		-24%	-5%
	TBEA	16,402	-2.0%	-16.1%	-22.1%		81%	31%
피팅	성광밴드	483	11.9%	-8.4%	-15.8%		-3%	74%
	태광	418	4.9%	-14.7%	-28.1%		33%	28%
	하이록코리아	248	7.7%	-6.9%	-13.0%		13%	14%
발전	두산에너지리티	36,267	6.4%	-13.7%	-11.0%		44%	398%
	비에이치아이	1,103	11.6%	-18.3%	-41.4%		47%	575%
	S&T	372	3.0%	-20.5%	-42.3%		-22%	259%
	DONGFANG	14,169	1.5%	-13.5%	-20.1%		74%	52%
	BHEL	14,028	-4.7%	-5.6%	50.5%		47%	319%
	MHI	79,286	6.3%	6.1%	-17.2%		12%	472%
	IHI	19,256	7.4%	15.4%	-18.0%		37%	416%
	SIEMENS	253,264	5.9%	3.2%	39.5%		31%	98%
	General Electric	393,881	2.3%	20.0%	33.5%		53%	337%
	ALSTOM	8,472	4.1%	-7.2%	-32.2%		-16%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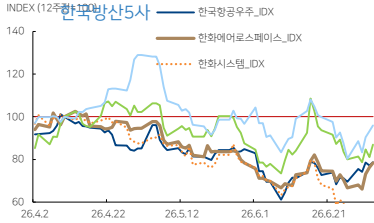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 경합								
철도	현대로템	14,307	19.5%	-1.0%	10.3%		11%	433%
	ALSTOM	8,472	4.1%	-7.2%	-32.2%		-16%	-33%
	Bombardier	22,941	0.1%	-1.5%	34.6%		108%	394%
	CNR	73,660	0.8%	3.9%	22.4%		20%	12%
	CAF	2,525	1.9%	4.9%	15.4%		43%	118%
	CSR	21,799	1.1%	-14.2%	-12.4%		-4%	11%
승강기	현대엘리베이터	1,843	4.9%	-5.5%	-16.1%		0%	99%
	KONE	30,845	2.0%	0.2%	-7.4%		-8%	10%
	THYSSENKRUPP	8,520	15.7%	2.4%	59.7%		71%	118%
	MITSUBISHI ELEC.	77,849	1.5%	-2.3%	11.4%		93%	197%
	HITACHI	129,728	3.1%	-12.4%	-2.1%		15%	161%
	SHANGHAI ELEC.	14,246	3.9%	-16.0%	-13.3%		21%	94%

공작기계 / 기타								
공작기계	화천기계	50	-10.3%	4.2%	-6.2%		5%	-8%
기타	와이지원	550	28.1%	53.6%	79.8%		278%	258%
	S&T중공업	779	6.4%	-12.1%	-27.3%		-24%	257%
	Amada	6,050	3.7%	3.3%	35.1%		94%	122%
	Moriseiki	3,308	6.7%	9.1%	53.2%		15%	56%
	Jtekt	4,208	5.0%	1.3%	26.5%		74%	63%
	Okuma	2,069	10.8%	23.3%	34.4%		33%	34%
	Makino	2,365	-0.1%	9.6%	32.7%		34%	182%
	Gildemeister	4,246	0.2%	0.2%	-1.7%		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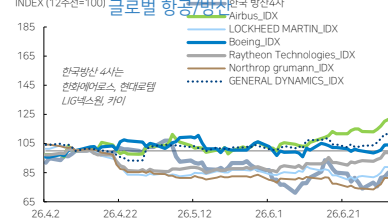


방위산업과 항공부품주

▶ 한국의 방산 3사+한화시스템+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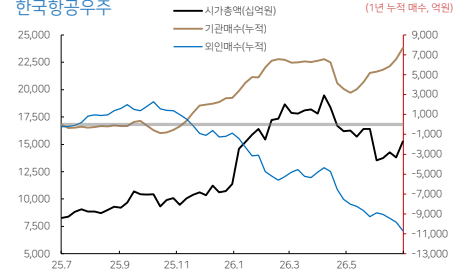


▶ 글로벌 방산/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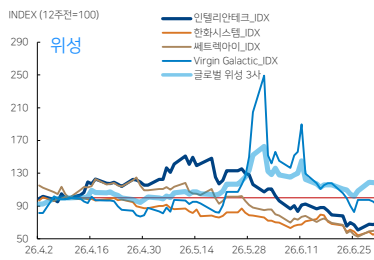


방위산업 수급

한국항공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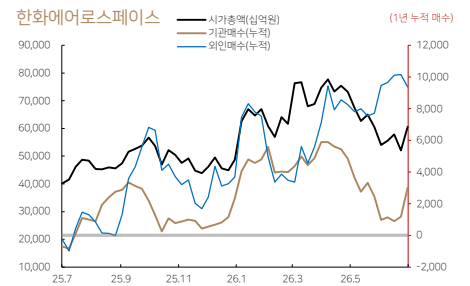
▶ 한국과 해외 위성 피어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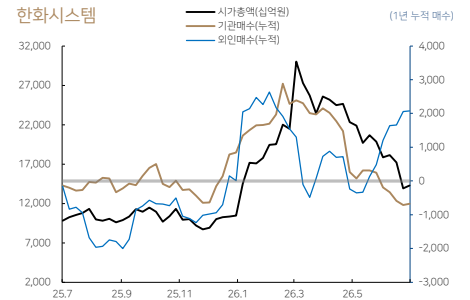
▶ 항공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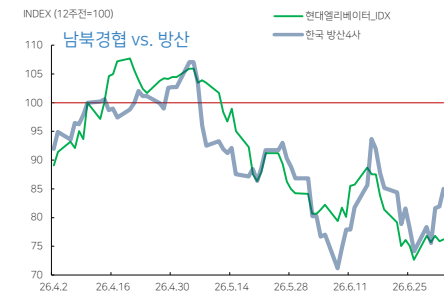
한화에어로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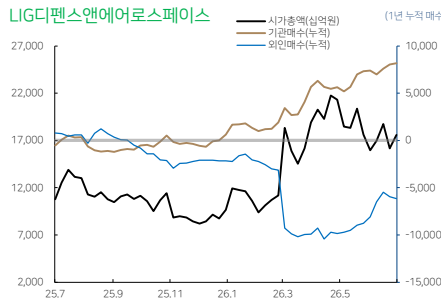
한화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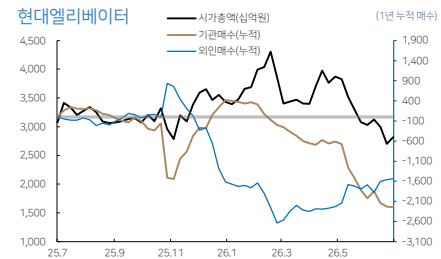
▶ 방산 vs. 경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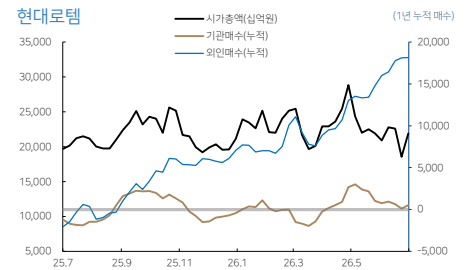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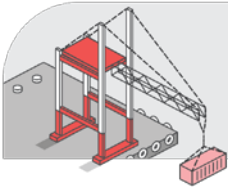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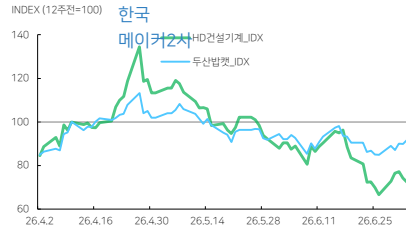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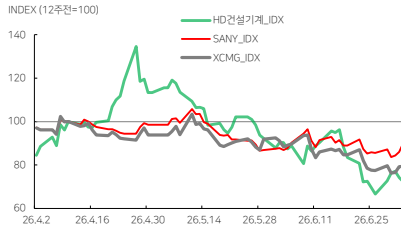


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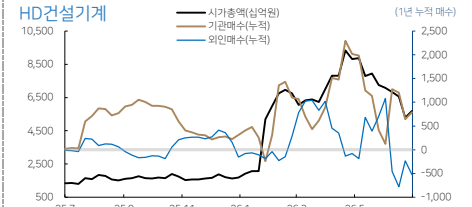
▶ 한국의 메이커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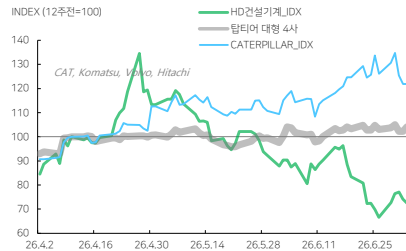
▶ 중국 건설장비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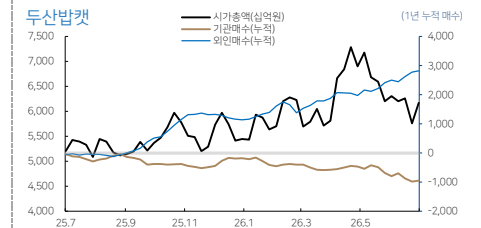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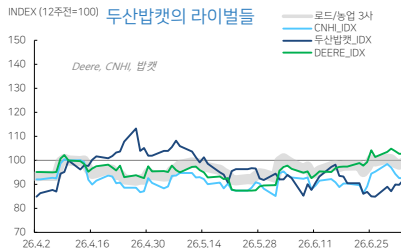
건설기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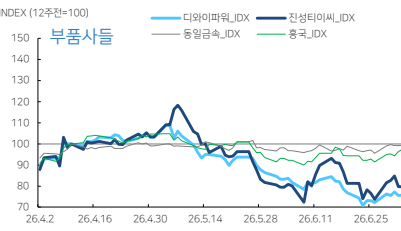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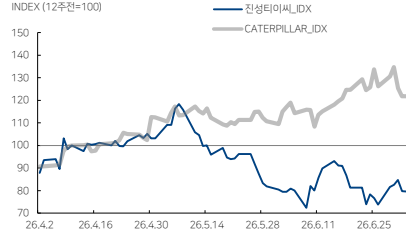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건기, CAT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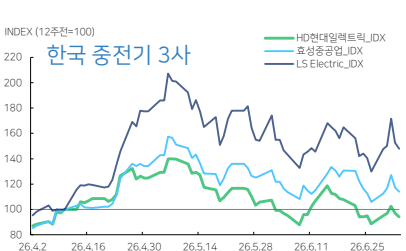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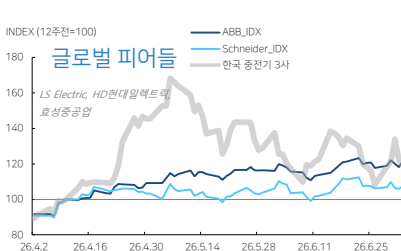


중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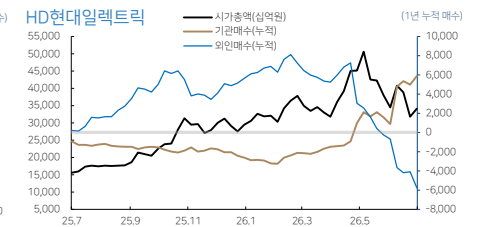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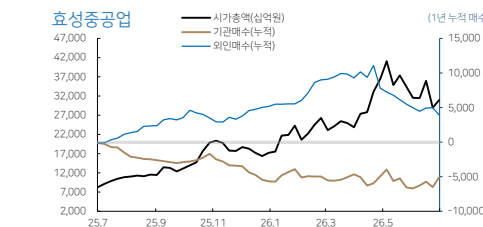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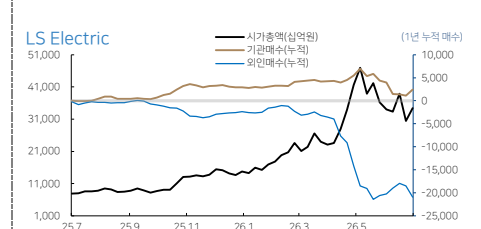
▶ 한국 중전기 3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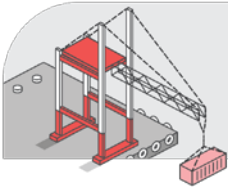


▶ 글로벌 피어 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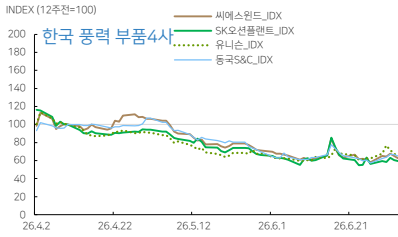
중전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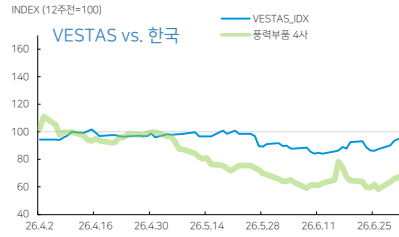


풍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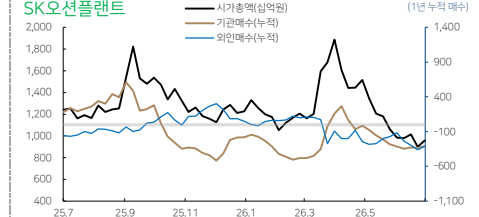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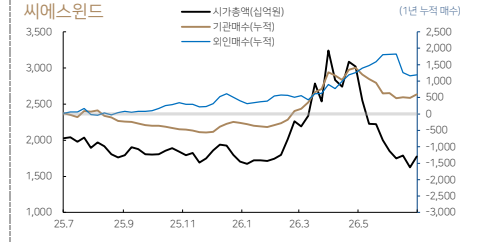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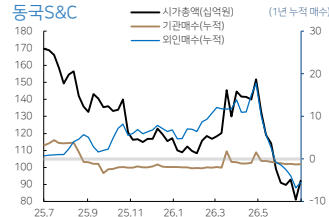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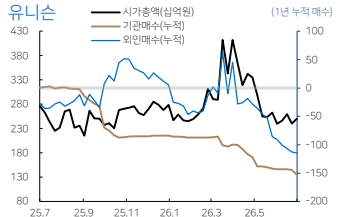
▶ 한국 풍력 부품4사



▶ 한국 풍력 vs. VEST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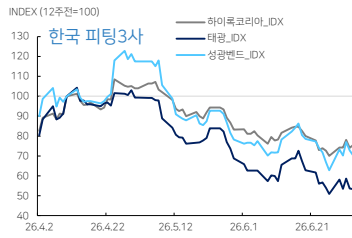


풍력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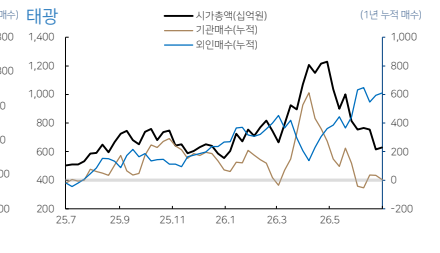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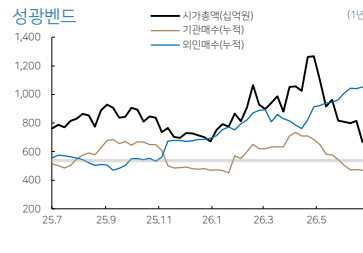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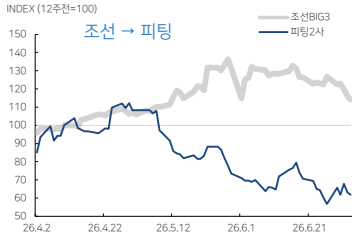
▶ 피팅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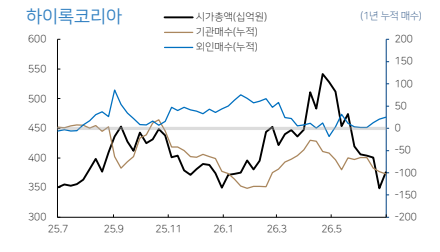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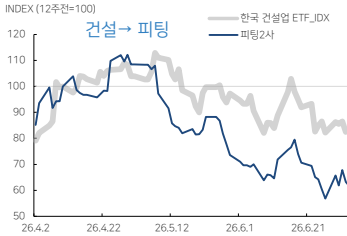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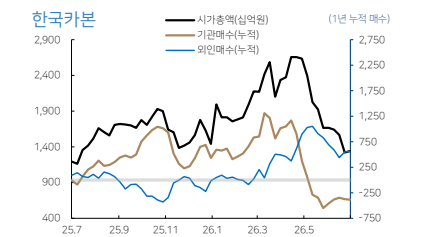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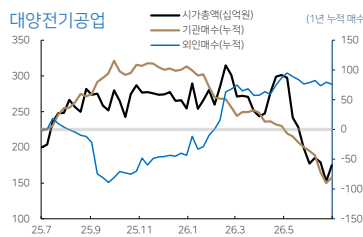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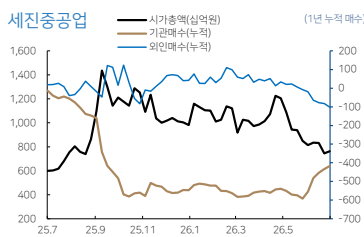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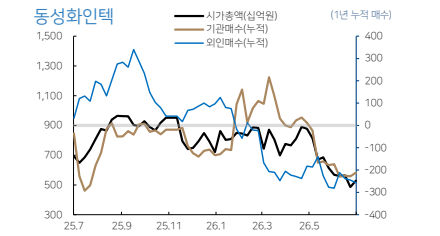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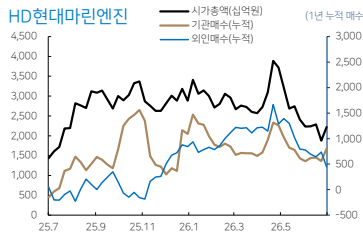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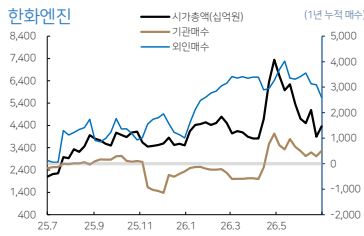
▶ 조선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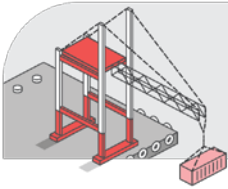


▶ 건설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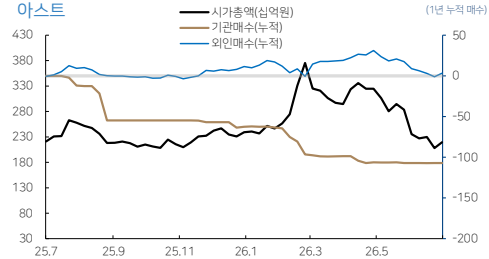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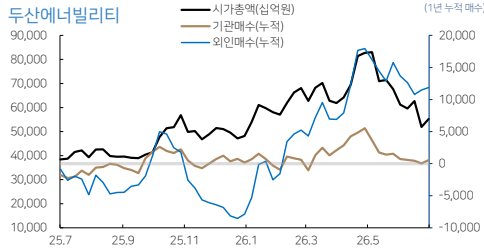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수급





기타 기계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당사의 투자 의견 중 BUY는 "매수", HOLD는 "중립", SELL는 "매도"에 해당.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 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

▶ 투자등급 비율

BUY : 91.7% **HOLD : 8.3%** **SELL : 0.0%**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